

## VI. 의 사 록



### 1. 개 회 식

사회 【古川 洋三 (사)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게 될 일한경제협회의 전무이사 후루가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리시버는 채널 1이 일본어, 채널 2가 한국어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의에 앞서서 조석래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단장단 여러분께서 일본정부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측 예방단 7명은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의 안내로 어제 4월 14일 오후에 센고쿠 요시토 내각부 국가전략부 담당대신, 오카다 카즈야 외무대신,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대신, 노다 요시히코 재무부대신을 각각 예방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양국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임을 서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기초로서 양국이 주도하는 양국간의 FTA(EPA)의 체결을 선행시킨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된 인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받은 일본의 관공서는 다같이 FTA(EPA)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세를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예방단도 열린 하이라벨의 FTA체결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제시했습니다만, 동시에 한국 국내에는 협상진전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나 관세문제 등 몇 가지 과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같이 했습니다. 이상 간단한 예방단의 보고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입니다. 다음 한일경제협회의 조석래 회장입니다. 조석래 회장님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측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님입니다. 그리고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의 황순택 경제공사입니다. 다음 강신호 동아제약(주) 회장입니다. 회장님은 전경련의 명예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측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오카야마현의 이시이 마사히로 지사입니다. 다음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미야마 히로시 (주)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동경대학 총장고문입니다. 다음은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경제인회의의 관례에 따라 양측 경제협회 회장께서는 오늘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양측 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1) 단장인사

**사회 :** 그럼 먼저 식순에 의하여 양국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게시겠습니다. 먼저 일본측 단장이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일본측 대표단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이지마입니다. 금번 경제인회의는 제42회째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의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인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이신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많은 협력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오카야마시에서 개최됩니다만, 오카야마현과 시, 상의, 그리고 관광컨벤션센터의 단체장님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다망하신 가운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를 보면, 재작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그 영향으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각국의 협조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각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봄으로서 지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대책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업으로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글로벌 불황, 경제위기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경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의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되고 세계경제가 힘차게 경기회복이 될 경우 국제협력체제 혹은 국제공조체제가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1월에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 후 APEC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모두 참으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과 하토야마 총리대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경제교류에도 작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역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

면, 712억불이라는 전년대비 180억불 감소 즉, 20%감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데 일본의 대한투자를 보면, 19억불로서 이것은 전년대비 36% 늘어났습니다. 즉 한국전체의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한투자가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무역, 경제, 인적교류는 그 때 그 때 여러 가지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파트너가 두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두 나라가 앞으로 더욱 더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점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그 반성 하에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공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동존이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를 이해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협력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대담하게 협력하면서 같은 길, 같은 방향을 추구해 간다는 말입니다. 작은 잘못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과 한국의 두 나라가 미래의 커다란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끈, 신뢰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상호신뢰관계가 없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결과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분

야에서 각 계층에서 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한 일본과 한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간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두 나라간의 FTA/ EPA 체결입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높은 수준의 FTA/EPA가 체결되도록 양국 정부에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과 한국의 방향성, 관계성 등등에 입각해서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한국측의 조직과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2~3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균형을 위한 활동입니다. 작년 10월에 대한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약 30개사로 편성된 투자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세 군데 공업전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대한투자확대뿐 아니라 일본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방문대상지를 더 확대해서 다시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양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거래 혹은 사업공조, 사업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이것을 일상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국 재단에 2년 전에 비즈니스정보센타를 설립했는데, 그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10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더 확대해서 양국간의 투자확대, 무역확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두 번째 커다란 포인트는 양국의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교류입니다. 작년에도 양국의 고교

생교류캠프를 일본과 한국에서 각 1회씩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최근의 이 캠프의 특징으로는 고교생 수준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국학생 모두 어학력, 특히 영어능력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한국의 고교생들은 영어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교육효과도 높고 그래서 참가학생뿐 아니라 관계자들도 높은 평가를 얻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오사카에서 개최했는데, 이 때는 일본의 NHK가 이틀간에 걸쳐 캠프의 모습을 방송을 했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캠프는 자유롭게 견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캠프현장에 오셔서 꼭 한번 견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수활동입니다. 과거에는 한국대학원생들이 일본에 와서 연수받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본대학원생들이 한국에 가는 연수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더 확대해서 쌍방향으로 대학원생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양국이 제창하는 기술입국, 기술창조입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협력 하에 양국 협회 및 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인회의라는 것도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장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토의하였던 그 내용들도 취합해서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각국 정부에 건의를 하는 식으로 정보를 발신해 가는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로 본 경제인회의가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뜻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회 :** 이이지마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좋은 계절에 유서깊고 아름다운 도시 이곳 오카야마에서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 해주신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이시이 마사히로(石井 正弘) 오카야마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님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 宏) 전 도쿄대학 총장님과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한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요 경제국들이 신속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데 힘입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선진 경제권도 미세하나마 흑자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실업률이 높고, 유럽에서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선진경제권 모두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여서 경제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歐美, 특히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과잉소비를 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 서구 국가들의 소비가 세계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지금의 불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歐美 경제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자면 상당 기간 저수요, 저성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歐美 경제권에 버금갈만한 경제력으로 성장한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계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歐美주도로 세계경제와 금융질서가 이루어지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발전과 금융질서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시아는 그 동안의 구라파, 미국 등 역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 자체 내수시장을 키움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시아가 자생적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성장 중심축으로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아시아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역내무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으로 상호간의 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

울러 아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역내 금융협력 체제를 만들어 세계금융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내 시장 개방과 금융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이 경제공동체의 구축입니다.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정권출범 초기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유로존의 조화와 협력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지구온난화 대처 등의 협력을 위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종교, 문화,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 많은 이질성을 안고 있어 단시일 내에 전 지역을 엮는 지역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같이하고 있고 경제발전 단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가까운 한일 양국이 우선 협력하여 부가분의 partner로서 중심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키워 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U의 형성과정에서도 처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철통같은 연대를 맺어 유럽의 규합을 이끌어냈듯이 아시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해 왔지만,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서로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에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국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돈독해져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지난날의 장벽을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면서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자존심으로 전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의 감동을 되살려 우리 두 나라가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대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굳건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의 영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아시아의 책임 또한 크게 주목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일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눈부신 세계 경제성장은 21세기에 들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을 가져 왔습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원 고갈의 위기와 환경변화의 위협을 가져옴에 따라 '그린 산업'을 통해 미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 paradigm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앞선 환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선구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에게 '그린 비즈니스'는 매우 적절한 협력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 그리고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내빈인사

**사회** : 조석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국의 내빈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 오카야마현의 이시이 마사히로 지사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石井 正弘  
(ISHII Masahiro)  
오카야마현 지사



일한·한일경제인회의가 이곳 오카야마현에서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오카야마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경제교류를 통해서 양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본 경제인회의가 서일본 교통의 요지이며 봄의 고장인 오카야마에서 개최되어 더할 나위없는 영광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카야마현은 정령시가 된 오카야마시하고 그리고 오카야마상공회의소 등과 공조하면서 본 경제인회의 개최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카야마현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야마현에는 수많은 역사유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품들을 보면, 은제품, 철제품 또는 토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반도와 여러 관계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웃에 세

토치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시마토노치라는 곳에 가서 가라코오도리라고 하는 춤이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춤은 조선통신사들이 에도시대에 12번 일본을 찾았는데, 그 중에 11번이 오시마토항에 기항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명의 이 지역 사람들이 이들을 환영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초를 닦은 것이 조은 대사입니다. 그 대사님의 출신지인 미량시하고 오시마토항이 우호협정을 체결했고 그리고 현재는 오카야마시하고 인천시가 자매결연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오카야마현도 작년 10월에 이 호텔에서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를 맞이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호방문단을 결성해서 한달 전에 경상남도를 방문했습니다. 김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과 교류를 가졌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창원시와 마산시, 마산시는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아주 큰 공업지대로서 산업발전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조선소도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해인사라는 세계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문화역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시를 방문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항만의 개발건축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서로의 강점을 잘 연결해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협력해 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또 우호방문단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한국음식도 먹었는데, 아직도 그 내음이 느껴지는 막걸리, 돌솥비빔밥, 파전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풍족히 대접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

니다. 그런데 여성 참가자들은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장소였던, 윤사마와 최지우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를 방문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다함께 한국에 꼭 다시 한번 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귀국하였습니다. 이 조선통신사라는 말은 통신사의 신자는 딴을 신이라는 글자이지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이지마 회장님도 상호연대를 소중히 해야 한다,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시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앞으로도 우호교류를 더욱 더 촉진하고 양국의 발전을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카야마현은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우리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를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에서 여러분의 상호이해, 그리고 우호교류를 돈독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회의가 유익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카야마현으로서도 맛있는 특산품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소에도 한번 둘러 보아주시고, 오카야마현의 천하의 3대정원이라고 하는 고라쿠엔, 그리고 세토하시, 온천 등 현을 대표하는 관광지도 사모님들 잘 둘러 보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카야마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며 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환영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이시이 마사히로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측 내빈으로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님의 축사를 받았습니다. 그 축사를 한국대사관의 황순택 경제

공사께서 대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순택**

**주일본국대한민국  
대사관 경제공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 대독)**



존경하는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올해로 제42회째를 맞는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일정상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축하메시지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발족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대표적인 민간경협체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 및 '환경경영 및 그린 비즈니스'를 주제로 채택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공조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양국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 한일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는 1965년 2억불에서 '07년 827억불이라는 최고치('09년 712억달러)에 이르기까지 4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對韓 투자액은 작년까지 총 239억불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일 경제인회의를 통한 양국 경제인간의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간 경제교류가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이러한 양적 성장에 만족한다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한일관계, 즉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를 이룰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기술교류, 투자 확대 등 양국기업간 협력 확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FTA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FTA를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일 FTA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는 양국간 교류협력을 넘어, 제 3국 공동 진출 및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시대에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경제인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투외교가 복원되었고, 외교·안보,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제안 등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분위기는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상호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제42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황순택 공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重家 俊範**  
(SHIGEIE Toshinori)  
주한일본대사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임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진의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경제의 약진이라든지 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선수들의 활약상들을 보면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이 하나의 슬로건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측은 「한국기업 혹은 한국정부는 종전 이상으로 긴장해야 한다, 일본을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언론의 논조가 엿보입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 라는 제계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일양국은 종전이상으로 서로로부터 배우고 또 힘을 합쳐 나가기 위한 그런 기운이 드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고 양국간의 경제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제인회의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의 킨텍스에서 이른바 부품소재관련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국경제에 더욱 더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의 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양국기업간 연대를 촉진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경제연대협정 EPA/FTA협상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아무쪼록 본 협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에 일본과 한국이 공헌해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에 물론 민감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 하에서 일본정부 전체가 이것을 긍정적,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했고, 또 지난 달에는 아카마츠 농림수산성 대신이, 그리고 다케마사 외무부 대신이 방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측과 고위급의 아주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달에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국 제조업 3,000개사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양국의 FTA에 대해서 찬성

한다는 사람이 68.1%였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지지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종합해 보면, 한일EPA/FTA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이 확실히 무르익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을 통해서 논의해야 하 것은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FTA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40년 이상 걸쳐서 양국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주었고 또 시사점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본 경제인회의가 많은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양국관계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시게이에 대사님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의 인사말씀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배치를 바꾸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대표단 여러분들은 일단 단상 아래의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기조연설

**사회 :**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이지마 회장님,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 주실 고미야마 이사장님, 이흥구 이사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경제인회의의 기조연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의장을 맡아주실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과 조석래 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국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단장 :**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와 조석래 회장님 둘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먼저 일본측에서 그 다음에 한국측에서 각각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측으로부터 (주)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이신 고미야마 히로시 이사장님께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일본의 과제와 대처」라는 테마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고미야마 히로시 이사장님은 1967년에 도쿄대학 공학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1988년에 도쿄대학 공학부 교수로 취임하셨습니다. 2000년에는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장, 공학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도쿄대학 부학장을 거쳐서 2005년에 총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는 도

쿄대학 총장고문 및 (주)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하시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정부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의 요직을 역임해 오셨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 (1) 일본측 기조연설

### 『地球温暖化 防止를 위한 日本의 課題와 對處』

小宮山 宏

(KOMIYAMA Hiroshi)

미초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방금 소개받은 고미야마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국에 친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도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총리님께서 서울대 총장을 맡으셨을 때 저도 동경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서로 오가며 교류를 가졌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또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협력해야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경쟁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물의 포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선진국은 100명에 50대 즉 두 사람이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거의 포화상태지요. 또 인도는 100명당 1~2대 수준입니다. 가옥의 숫자라는 것도 인구에 따라 포화가 됩니다. 일본은 현재 5,800만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 800만채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채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구 자체수가 포화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5,000만채 이상으로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7,000만대의

자동차가 평균 12년만에 폐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7천만 나누기 12, 즉 600만대, 다시 말해 1년에 600만대가 일본국내에서의 신차수요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수만큼 폐차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집의 경우는 50년만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0만 나누기 50하면 1년에 100만채의 내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공물의 포화라는 것은 조금 전 조석래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미시장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수요는 부족하게 됩니다. 공급과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물의 포화가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으로 수년 동안에 포화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TV는 그 싸이클이 짧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공물의 포화는 언제쯤 도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먼저 시멘트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시멘트라는 것은 싸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의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이것은 인구로 나눈 시멘트생산량입니다.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일본하고 중국을 비교해보면 2배로 보이는데, 인구가 10배이니까 20배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시멘트생산의 50%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면적, 선 밑에 있는 면적이 토탈 얼마만큼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1인당 16톤, 일본은 26톤의 시멘트가 투입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8년에 11톤입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2년 후 미국은 1인당 16톤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일본은 1인당 26톤에

도달합니다. 다음 이것은 자동차의 국내 관점에서 살펴 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 것이 일본이고 까만 것이 한국입니다. 미국은 1920년보다 조금 앞부분에 포드 같은 차가 대량생산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동차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며 수십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4대정도 팔리면 내수는 포화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에 대해서 50대를 팔고 있기 때문이지요. 12년 만에 교체구매를 한다고 하면 100명에 4대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4대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1,300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3억이니까 100명당 1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1962년에 100명당 1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후 6년 후 100명당 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수십년 늦게 그러니까 1983년에 100명당 1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4년만에 100명당 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100명당 1대에서 100명당 3대 혹은 4대가 되는 이 기간이 시멘트생산의 급증 시대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모두 가장 고도성장했던 시기였지요. 이것이 시멘트, 자동차성장을 통해서 본 마켓이었는데 여기까지는 통계입니다. 지금 이후를 또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5년 내지 10년 동안 중국이 세계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동안은 중국이 계속 끌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마켓 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욱 더 부각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아니 5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생산과잉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도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겠지요. 즉 지구는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밖의 다른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 자동차, 시멘트와 같은 물건으로 상징되는 보급형수요라는 것입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또 하나의 수요는 창조형의 수요입니다. 즉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요입니다. 오늘 화제가 되었던 그린이노베이션은 바로 창조형 수요, 화제가 되고 있는 고효율 급탕온수기, LED 등은 앞으로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갈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는 엄청난 이노베이션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앞으로의 수요인데 이 부분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고령사회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중국 북경에 갔는데 중국은 2032년에 인구가 피크를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25년에서 2030년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중국에 가서 회의 때 기조강연을 하면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중국의 인구가 피크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중국의 건설부 차관이 손을 들며 아니다 중국의 피크는 2032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중국도 그 만큼 고령사회라는 것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독자정책, 하나의 아이 낳는 정책을 장려했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도래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수요가 됩니다. 한국도 저출산국가이지요. 일본은 1.35까지 갔는데 한국은 1.1정도지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주목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2.07까지 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사

회라는 것을 어떻게 활기 있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커다란 과제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기 있는 고령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면 이것은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형 수요에 대해서 동아시아마켓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창조형 수요에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 두 부분이 대단히 긴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견인해 나간다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견인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하고는 다른 새로운 지구적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입니다. 구글, MS, 오라클 등 미국의 독무대처럼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앞서 가고 있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 이 분야에서 미국의 독무대가 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유한한 지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저한테 주어진 테마, 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지구는 식량문제도 있고 물문제 등은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별로 지적되고 있지 않는 것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유럽은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작년 일본에서 스웨덴의 정치인, 경제인, 학자들이 일본에 와서 대규모 심포지움을 개최했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과 스위스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유럽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으로부터 젊은 인구들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번에 제가 일본은 이민이 없어 참 힘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2050년에는 어디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까요? 중국으로부터도 미국에 가지 않습니다. 2032년에 중국은 인구가 피크아웃되기 때문이지요. 또 인도의 장관한테 물어 보았는데 2040~2050년에 인구가 피크를 맞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다고 하는 인도조차도 2040~2050년에는 고령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도 미국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인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활기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그린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온난화문제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비전 2050이라는 것을 계속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에너지자원 부족문제와 환경문제를 방치하면 큰일난다는 경고 즉 위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내야만 합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비전 2050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효율을 3배로 만드는 것, 난방은 하지만 그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3분의 1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자력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석화연료 등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고 그 다음 물질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인류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고 해서 비전 2050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론입니다. 현 상황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자동

차가 단위거리를 주행하는 에너지는 비전 2050에서 5분의 1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아마도 더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는 가로축으로 자동차 중량무게, 세로축으로는 연비의 역수를 잡습니다. 이것은 1리터당 10킬로미터를 주행하면 0.1리터의 휘발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수를 잡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리적으로 직선이 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시속 60킬로, 80킬로, 보통속도로 주행할 때는 그 저항이라는 것이 타이어와 지면사이의 마찰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와 지면과의 마찰이라는 것은 중량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중량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사람들은 가로축에 배기량을 잡고 세로축에 연비를 잡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고 올바른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유럽의 자동차인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등은 쪽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파란색 일본의 혼다, 도요타, 닛산같은 자동차인데 역시 한 줄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차는 거의 중간에 자리매김 합니다. 일본은 구미하고 비교하면 같은 무게로 20%의 에너지효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기술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명확한 기술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차가 되면 그 반이 됩니다. 즉 전기자동차 혹은 연료전지차가 주행하게 되면 에너지효율은 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는 아마도 모든 자동차는 연료전지차 혹은 전기자동차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자동차 혹은 연료전지차라는 것은 태우질 않습니다. 폴리마와 같은 가벼운 자재를

사용하고 나노테크놀로지와 같은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있고, 경량소재라는 것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비전 2050에서 20년이 되면 자동차의 연비가 5분의 1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예측일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에너지효율 3배라는 목표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것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이 자리에는 시멘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시멘트라는 것은 최첨단 프로세스의 에너지소비는 아마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일본의 예이지만, 한국도 비슷한 라인을 그릴 것입니다. 일본의 시멘트는 60년에서 90년대까지 30년 동안 에너지소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의 시멘트는 급열반응입니다. 이 급열반응이 있는 후에는 에너지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론치의 1.6배까지 에너지소비를 하고 있는데 더 저렴한 프로세스라는 것이 탄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에너지소비가 이 이상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동차는 20분의 1이 되어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1.6분의 1이라는 것이 이론치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효율이 나쁩니다. 미국의 시멘트는 지금도 1.6배, 1.7배의 에너지를 1톤의 시멘트를 만드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입니다. 지금 세계 시멘트의 반을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지요. 아마 미국보다도 더 효율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시멘트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일본시멘트의 에너지효율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태평양시멘트 등 시멘트회사 사람들의 모럴이 높아서, 그리고 지구환경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효율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에너지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에너지효율을 회수할 수 있어 이익이 더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에서 에너지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입장에서 보더라도 에너지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첨단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가? 아마도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멘트에너지효율은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로 줄어듭니다. 자동차는 이 만큼 줄어 들고 철, 종이펄프도 재검토했고, 가정의 에너지소비인 큰 냉장고 혹은 조명 등 에너지소비가 큰 것은 다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서비스당 에너지효율을 3배로 올리는 것이 아주 타당한 목표치가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1990년 세계에서는 80%가 화석자원이고 20%가 비화석자원입니다. 그런데 2050년 브릭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 수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90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히 3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이산화탄소는 600ppm 농도가 됩니다. 이것은 파탄의 시나리오입니다. 비전 2050을 달성할 수 있으면 똑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똑같은 자동차가 주행을 하지만 3분의 1의 에너지로 가

능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1990년하고 똑같은 에너지소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비화석연료를 2배로 늘리면 25%의 이산화탄소를 삭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이 때 460ppm이 될 것입니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IPCC의 권장안이 있지요. 이산화탄소를 450ppm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20년 전부터 바로 이 점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만한 에너지소비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의 향상덕분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를 논의할 때 화석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어떻다, 또 원자력이다,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등등 이런 대체에너지가 논의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효율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비화석연료를 개발해서 여기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기술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이란 것입니다. 태양전지, 풍력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개도국하고 선진국의 문제입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2050년 선진국의 에너지소비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구수는 포화됩니다. 자동차수, 가옥수, TV수 다 일정합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평균 3배가 됩니다. 2050년 에너지소비는 3분의 1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비화석연료를 2배로 늘리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80%가 줄어듭니다.



니다. 다음에 코펜하겐에서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만 선진국이 80%를 2050년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깔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도국입니다. 개도국이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시멘트생산량을 세계의 반까지 차지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이 좋은 기술이 있고 그것이 중국에도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중국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은 권리이지만 효율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데이터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산을 하는데 45%, 일상생활에서 55%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지만, 이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은 이미 높습니다. 시멘트를 예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운송, 자동차에서 크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지요. 일본이 취해야 될 전략은 일상생활에서 줄인다, 그리고 에너지절감형 제조업에서 리드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이 나가야 할 기본전략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온수와 조명, 주방 이런데서 대략 80%를 차지한다. 즉 조명은 LED 고효율형광등 대체로 줄어들 수 있고, 냉장고의 경우 20년 전 냉장고와 비교하면 에너지소비가 5분의 1까지 줄었지요. 이것은 에어컨의 지수인데 1킬로와트의 전력 소비로 몇 킬로와트의 냉난방이 가능하

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일등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1킬로와트에서 3킬로와트의 냉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43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냉난방을 하는데 4분의 1 전력이면 가능하다 라는 것이 2050년에는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쓰비시전기의 기리가미네라는 에어컨은 에너지절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에어컨과 20년 전의 에어컨을 대체구매하면 전력소비가 6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일본의 약점이고 한국이 더 잘하는 것인데요. 집안의 단열효과가 더 좋아요. 일본가옥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위해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지붕은 꽤 얇은데 벽은 바람이 술술 드나듭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해봐야 효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집과 빌딩의 단열을 열심히 하면 냉난방의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4배 효율이 되고 단열이 3배 좋아지게 되면 30%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너지절감의 왕국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급탕온수인데 일본에서는 현재 히트펌프로 에코큐트라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아마 이 히트펌프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연료전지의 급탕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36%의 전기를 만들고 45%의 뜨거운 물을 만듭니다. 35%의 발전효율이라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집에까지 가는 효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급탕이라는 것은 거의 에너지사용 없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같은 히트펌프가 대량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생산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1만대 정도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시대의 새로운 급탕기

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소비가 80% 절감됩니다. 이것은 58% 에너지소비를 줄인다는 것이고, 23%는 태양전지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효율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58% 줄인 것은 에너지효율의 향상이었다는 것이고 23%는 태양전지로 전기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81%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라는 것은 시멘트의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혜를 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은행에서 돈만 꾸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사무실의 효율화, 일본은 정말 단열효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창으로 하든지 하면 에너지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그룹이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제안안입니다. 25%절감의 시나리오입니다. 일상생활, 주택, 오피스, 수송 등에서 12%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들이 산출해 낸 숫자입니다. 다음 제조업에서도 3% 줄입니다. 일본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이 이미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의 효율은 9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60%대까지 여러 이유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 효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90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국제표준인 80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컨센스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효율을 국제표준 가능하다면 한국과

같은 90%수준까지 근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4~5%는 달성됩니다. 다음 농업과 삼림에서 5%. 그리고 일본의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DM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해서 90년 대비 30%, 그 중에서 25%를 달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급을 이것도 한국과 공통의 과제인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 얘기했던 것으로 EKL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50년의 일본의 에너지자급율, 자원자급율, 식량자급율 등이 자급율 목표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물은 풍부합니다. 물, 식량에너지 이런 식으로 자급율을 잡아 놓으면 기반은 더욱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검토사례인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아깝다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아깝다라는 감각이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대체구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버리다니 아까워하면서 에너지소비가 많이 되는 냉장고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아까운 것은 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기업은 업무를 통해서는 이산화탄소 삭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문제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CSR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이 분야에서의 직원들의 감원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년동안 아키야마 히로카라는 교수가 6,000명의 고령자를 추적해 만든 아주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령자가 사회의 참여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고령사회는 아주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70%의 사람은 70대 후반에서 자립심을 상실하고 90대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90살이 되어서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쪽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60대 전반에 쓰러져 오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기차게 가져 가느냐 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의 제조업과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웨덴 국회의원 시찰단 사진인데요, 왜 일본에 왔느냐 하면, 스웨덴과 같은 작은 나라일 경우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의 집적축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발용로봇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으면 고령사회가 활기 찬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일본도 국가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플래티나 구상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가을에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도시네트워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30여개의 광역지자체가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카야마현은 아직입니다만 지사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매도시를 많이 만들고 한국분들 하고도 같이 하고, 이미 이런 도시들이 참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읽어 주기 바랍니다. 일본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좋은 책이 안팔리는 것도 일본의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단장 :** 고미야마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제약이 많아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못해 유감

입니다만, 이상으로 고미야마 히로시 이사장님의 기조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국측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이흥구 전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님께서 『韓日協力の 新時代를 追求하며』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흥구 이사장님께서 1968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후에 예머리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02년에는 영국 쉐필드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흥구 전총리께서는 1969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1988년에는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내셨고, 1994년에는 제28대 국무총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신한국당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1998년에는 주미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학자로서도 정치가로서도 성공하셨는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 월드컵유치 위원장을 맡으셔서 한일월드컵 공동개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한일문화교류기금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스포츠나 문화교류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흥구 전총리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 (2) 한국측 기조연설

### 『韓·日協力の 新時代를 追求하며』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 1. 인사말

존경하는 일한경제 협회 飯島 英胤(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 한일경제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님, 石井 正弘(이시이 마사히로) 오카야마현 지사님, 한·일 양국의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오카야마시는 섬유 등 공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이며, 동양 최대의 반사 망원경을 설치한 오카야마 천체물리관측소 등이 있는 과학, 교육 도시일뿐만 아니라, 일본의 3대 정원의 하나인 고라쿠엔(後樂園)과 오카야마성 등의 사적지가 있는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토야마 수상께서 우애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본에도 오랜 친구가 많으며 특히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과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수십 년 지기입니다.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친구 따라 일본의 오카야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정부와 더불어 한국 등 아시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내각의 출범으로 한·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어 가일층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실물경제부문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와 관련하여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내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나 환경관련 이슈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창조에 일조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일본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그간 한일협력관계와 향후의 협력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는

##### 한·일 신시대의 서막

저는 대학교수를 거쳐, 영국과 미국 대사, 통일부 장관과 부총리, 국무총리(1994~1995)를 역임하였으며, 국회의원과 집권당인 신한국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제까지 비교적 여러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저의 일생에서 이러한 여러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200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것입니다. 제가 '2002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던 1993년 당시에는 일본이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월드컵 유치에 나선 한국 측으로서는 일찍부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상대하느라 한국유치를 위해 힘든 노력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경합하는 과정에서 FIFA 위원들이 개최국 선정을 위한 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이타(OITA)에서 시험 후에 삿포로로 가는 것보다 부산으로 가는 것이 가까울 정도로 두 나라가 가까워

서 원래 FIFA규정에는 공동개최가 없었으나 양국의 공동개최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1995년 말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 신한국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인 1996년, 스위스에서 FIFA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양국 공동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양국 간의 불행한 경험을 씻어버리고, 21세기의 첫 월드컵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공동번영을 가능케 하자는 韓日 양측의 역사 의식이 이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2002월드컵대회에서 한국은 4강 진출, 일본은 16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민 간에 상호 신뢰와 우정이 싹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노력한 한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합방)이 있는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서로 단독개최를 고집하는 소모적인 경쟁을 뛰어 넘어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개최라는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한 2002년 월드컵 정신을 발판으로 한·일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 3. 문화 등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

우선 한·일 간의 신시대개척을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가 문화협력 강화일 것입니다.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1984년에 발족된 ‘한일문화교류기금’이 있습니다. 한일문화교류기금은 한일양국 국민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심화시켜, 한일양국은 물론 아세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일본도 같은 취지로 외무성의 지원 하에 일한문화교류기금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일문화교류기금은 민간기구로서 한국의 뜻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로 발족한 문화재단으로서, 저의 은사이신 서울대 법대 이한기 교수님의 뜻과, 한림대 이상우 전총장(현재 이사장) 등의 노력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으며, 저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국 간의 다양한 인적교류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현재 한중일 3국의 식자(wiseman) 모임인 ‘동북아현인회의’ 또는 ‘한·중·일 30인회’가 매년 개최 되고 있으며, 저도 한국 측 단장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3국의 각계 지도자 10명씩 30명이 모여 만든 민간회의기구로서, 2006년부터 3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중일 30인회, 일본은 동북아 賢人會, 중국은 동북아 名人會로 각국마다 명칭은 다양합니다. 동북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에서 제기되어, 한국의 중앙일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중국의 新華社(新華通信社)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한국은 제가, 일본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전 총리, 중국은 첸치첸(錢其琛) 전 부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멤버는 3국의 저명한 경제, 교육, 문화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06년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초점은 주로 경제와 문화 및 환경·에너지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이 보유하는 외환보유고가 약 3.5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제통화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수에 대처하는 3국간 공동전략은 가능한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는 2007년 도쿄에서, 3차 회의는 2008년 북경에서, 4차 회의는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5차 회의는 올해 4월 18~19일 일본의 나라市(遷都 1300년 기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와 조석래 회장은 한일경제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일본의 나라市에서 개최되는 東北亞賢人會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4.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보조 강화

이명박정부는 ‘신아시아 정책’이라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통해 동북아 및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주창하여 최근 이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에 ‘한중일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 출범을 위한 3국의 국장급 준비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3국 연구기관 간에 진행되어 왔던 민간 차원의 연구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체 논의에는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의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아시아의 민주국가로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내국(域內國) 간의 경제수준의 차이가 크며, 체제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질적인 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민감한 분야도 다르며,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한·일 양국의 협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일 제2세션에서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그린비즈니스 강화와 환경문제대처를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해 나갈 분야를 모색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벤쿠버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분야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친 한국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양국의 잠재력을 세계에 펼쳐 보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국도 피겨스케이팅 페어 분야에서 우승하여 동아시아 국가가 크게 약진한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정치와 경제의 스포트라이트가 점차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5. 한·일 협력의 현안과 과제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3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한·일 경제관계는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경제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무역적자 지속과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의존을 들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대일무역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일무역적자는 2008년 3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50억 달러 개선된 276.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對日무역적자는 주로 일본의 부품소재나 자본재

등의 對日 수입의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축소된 2009년의 경우 우리의 대일수출은 전년대비 22.9%나 감소하였고, 대일수입도 18.9%나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양국 간 교역의 축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의 對세계 수출이 13.9% 감소하고 對세계 수입이 25.8% 감소하였다는 것과도 대비됩니다. 즉, 대일수출 감소율이 대세계 수출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대일수입 감소율은 대세계 수입 감소율을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2009년 32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양국 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목표로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측의 분발과 일본 측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일 경제인회의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협력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그린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미래형자동차, 태양전지, 풍력발전 등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양국의 투자확대에 부응하여 한·일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이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08년부터 일본의 대한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일 투자는 일본의 대한투자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이므로 향후 우리의 대일투자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부품업체들이 엔고지속과 수요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우리업체가 자본참가 등 우호적 M&A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엔고 등으로 해외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도 노사분규 감소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향후 글로벌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보호무역주의 저지, G20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개선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웃으로 자리 잡는 기초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참석하신 분들께도 유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이지마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단장** : 고미야마 히로시 이사장님, 이흥구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강연을 모두 마치했습니다. 지금부터 커피브레이크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모든 회의를 마치려고 하오니 죄송합니다만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15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효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회의장을 나가시어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Coffee Break>

### 3. 보고·제안

飯島 英胤 단장 :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1년동안 양국에 각각 하나씩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각 위원회로부터 보고와 제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측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일본측 체어맨이신 아소 유타카 회장님, 그리고 전문위원회 주사이신 다카타 노부아키님께 활동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1) 신산업무역회의의 결과보고

##### 『新産業貿易會議 活動報告 및 人材交流 活性化에 대한 提言案』

麻生 泰

(ASO Yutaka)

아소라파쥬시멘트(주)

사장



신 산업 무역 회의 의 일본측 체어맨인 아소 유타카입니다. 그러면 활동에 대한 총괄 보고, 그리고 인재교류전문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 회의는 작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경제인 회의를 보좌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07년에 재검토하여 제안형 회의로 바꾸었습니다.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은 경제인회의의 심

의를 거쳐서 정부와 산업계에 제출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약 80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일본측은 한일인재교류활성화, 한국측은 한일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에 대해서 중간보고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2009년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사정으로 인해 1년 동안 연기되어 이번에 2년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제안의 구체화라든가 취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3월에 서울에서 체어맨과 코디네이터의 참석하에 톱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요망서는 양국 회장명의로 한다. 그리고 회의종료 후 2개월 이내 그러니까 6월 상순 경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32건의 제안을 제출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측은 2009년에 IT관광여행자격증, 서로간의 여행자격증을 상호승인하자는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일본정부도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승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격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도 정부와 함께 책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본측 제안의 배경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작년 경제인회의에서 저는 양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재교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인재교류와 현장을 공유하면서 양국의 열린 참된 국제적인 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



라 2009년에는 인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인재교류와 관련된 현황인식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단기, 중장기 양측면에서 원원의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청년노동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청년인재를 수용하고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도권 기업으로 취업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업률 향상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10만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한국의 젊은 청년인재가 공급됨으로서 양국에서 이러한 공조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의 청년인재의 일본기업에 대한 고용추진이라는 것인데, 목적은 역시 참된 기업의 국제화, 다양화, 그리고 외국인하고 취업을 함으로서 국내적인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인력은 학력도 높아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기 좋은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수발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자격증의 상호승인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교류라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양국이 저출산 혹은 경제와 환경을 양립시킨다고 하는, 이런 테마와 관련해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의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9페이지에서는 유학생과 관련된 수치를 보여 드렸습니다. 일본의 유학생과 한국의 유학생 수를 보면, 한국은 일본에서 중국에서 제 2위입니다. 그러나 체류 허가 비율이라든지 혹은 취직을 해서 일본에 정착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 유학생보다 훨씬 뒤지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기업측의 의견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참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수발과 환경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가지 여건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수발분야인데, 한국은 OECD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력증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인데, 각국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정부에 의한 환경대응추진이라든지 환경산업육성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현재의 인재교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보교환이 메인입니다. 취업을 촉진하는 면에서 자격증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양국간의 인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수발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라는 것은 전문 인력의 확보라고 하는 니즈에도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격공유화와 세트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면, 수발의 목적은 역시 일본의 인력난을 보완하는 형태의 이점이 있을 것이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수발비즈니스를 익혀서 앞으로 한국에 닥치게 될 수발인력부족에 반영을 시키고 응용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에 있어서의 목적인데,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의 표준화를 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이후는 일본측 제안의 요지입니다. 먼저 1번, 한국의 청년인재의 일본기업 고용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측의 수용분야로서는 2가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기회증대에 대한 것인데, 역시 기업은 기업측의 의식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방침의 명확화를 통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의 활력유지라든지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수한 외국의 인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을 위해서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착을 시키기 위한 체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취업정착이 가능한 연금 등의 부담경감, 그리고 지원기관 강화 등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업 가능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생활면에서의 여러 서비스향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14페이지는 양국의 공통분야입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격상호승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일본에서 쓸 수 있고, 일본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상호승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인재의 고도화에 대해서 다음 2가지를 요망합니다. 먼저 수발계통의 자격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수발비즈니스의 노하우, 스킬, 경험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족은 되었지만 비즈니스 자체는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수발인력을 함께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수발비즈니스 육성 혹은 인재육성에도 기여하고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

니다. 또 당분간은 일본측의 자격을 한국측이 승인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국제자격에 대해서 양국의 상호승인이 필요한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의 자격분야입니다. 양국 모두 기업의 환경대응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환경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련분야의 인재육성을 주도해서 자격규제기준의 표준화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과 한국이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격인재의 고도화 그리고 자격상호인증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같은 자격의 상호승인에 대해 모색해 나가고 환경대책이라든가 컨설팅이 가능한 그런 고급인력을 만들어 내고 예를 들면, 자격으로서는 환경계량사, 공해방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에 대한 상호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 같은 것을 활용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2010년의 대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의는 제언요망서 회답에 대한 과제대응진척확인을 중심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고, 테마선정에 대해서도 제언회답논의에 추가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저의 의지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한경제협회의 50주년이 2010년인데 이것을 진정한 스타트의 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변혁과 재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인재 외의 조기교류화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기업의 국내적인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본인들의 국제화대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

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인재가 함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과 같은 고급인재의 취업의 자유화를 통해서 양국에 신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합니다. 취업스킬, 노하우의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자격을 공통화 한다는 것, 혹은 인재의 고도화를 양국의 민과 관이 공조해 가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번째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양국은 인재교류 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더욱 더 심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몇 차례나 스터디를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 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격의 상호승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단장 :** 감사합니다. 그럼 다카다씨 부탁드립니다. 시간범위 내에 마치도록 부탁드립니다.

## 『人材交流 및 對韓投資活性化 提言案 詳細 説明』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주)노무라종합연구소  
부장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다카다입니다. 아소 체어맨 밑에서 작년도 인재육성에 대한 전문위 주사를 맡았습니다. 아소 체어맨의 보고를 조금 보완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도의 전문위 활동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도의 제언에 대한 추가설명입니다. 먼저 일본측의 인재교류활성화에 대한 제언이 되겠습니다만, 포인트는 취업기회의 확대이며 지원을 위한 구조와 체제 만들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한일의 공통문제로서는 유학생 수용의 문제 특히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격의 상호승인 문제입니다. 환경과 간호 분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기회의 확대에 말씀드리면, 취업활동 시에 외국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유감스럽게도 일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깝고 가까운 한국의 젊은 인재, 유학생, 대졸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계로서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특별한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장학금을 확대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방안

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착을 위한 체제를 만들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연금제도의 조화라고 할까? 그것을 포터빌리티할 수 있는, 일정기간 일본에 체제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 일본에서 지불한 연금보험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양국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양국간의 인재교류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센터라든지, 장기체류를 위한 각 부처의 지원체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유학생 수용, 취업의 구조, 특히 앞으로 유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졸업한 사람들이 일본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입니다. 각 부처가 연계하면서 외국인의 수용방침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과 기업은 채용방법, 또는 채용확대를 분명한 방침으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정착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 있어서도 일본기업과의 연계, 한국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상호수용니즈에 대한 체제구축입니다. 특히 일본기업의 정보라는 것이 한국유학생과 대학생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기회도 필요합니다. 일본어, 일본의 경영풍토, 비즈니스관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일본어 점정시험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보급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경영풍토와 관행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턴십이라는 부분인데, 한국에

서도 인턴십에 많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의 사이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인턴십은 약 1주일 내지 2주일입니다. 한국측이 일본에 기대하는 인턴십은 조금 더 기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양측의 시각이 다릅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격의 상호인증이 되겠습니다. 간호계 인재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아소 체어맨도 설명했듯이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만, 한국도 이제 이 분야의 제도가 점점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조하면서 아시아의 앞으로의 고령화시대를 향해서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선두주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구조구축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의 통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한일 공동으로 인재와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자격의 상호승인,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계통의 자격입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양국간의 환경자격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환경비즈니스방법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국에 국가자격이 있고 이것을 서로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일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한국에서도 자격을 받는다 라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작년도 제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언은 크게 나누어 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변경부분은 밑줄을 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부분을 확실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지재 분야 특히 정부가 지재관련법규를 정비한다, 추진계획과 관련조직을 확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대통령이 주재한 기본법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상 대출비율규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소기업의 정의 변경입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모회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출자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회사를 포함해 규모를 검토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요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의 상호승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IT하고 관광, 여행에 대해서 제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飯島 英胤 단장** : 아소 চে어맨, 타카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측으로부터의 활동보고에 대해서 조석래 의장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한국측 চে어맨이신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님으로부터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측 활동보고와 제안발표를 해 주시겠으며, 이어서 이덕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본수출기업 종합기술지원센터장께서 『한일부품소재산업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안』과 『대일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망사항』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

영호 চে어맨님 부탁드립니다.

## 『韓日 部品素材産業 協力の 새로운 패러다임 構築』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오영호입니다. 제1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아소 চে어맨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하고, 저는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지난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전세계적 경기 침체는 글로벌경제의 펀드멘털을 악순환 구조로 변화시키면서,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상호협력보다는 힘의 논리에 입각한 대립이 우선시되는 형태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을 재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 역내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역내 경제구도의 변화는 국가 간 상호 의존 및 경쟁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협력과 대립이 병존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외 사업전개와 기업 간 협

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공동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녹색성장 중심의 미래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일본기업이 한국진출에 있어 우려해 온 한국의 노사관계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많이 안정화되었고, 비즈니스 환경정비와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신정권 출범에 즈음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구상을 표명하고 있으며, 막강한 글로벌네트워크와 하이테크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수요를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새로운 변화를 보다 폭넓은 협력 체계로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국가적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간 협력 강화에 공동 노력할 때입니다. 양국 기업 간의 물류, 인재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글로벌시장에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데 상호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단순한 인건비 억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차원의 비즈니스 전개와 기업 간 협력 틀에서 벗어나, 최적의 제품,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의 확충,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협력 패러다임” 확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전개와 협력은 기존의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협력 패턴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패러다임 하에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과 긴밀한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한일 부품소재산업간 협력 전개와 성과>

그 동안 한일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협력은 크게 제품과 공정부분을 중심으로

분업형 그 결과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이면서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간 분업형태의 협력은 수평적 분업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수출의 효과를 높여왔으며,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는 꾸준히 중고급 부품소재 개발에 주력해 왔고 또한 공정간 분업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원천기술 개발 역량으로 한국의 제품개발과 설계뿐 아니라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기업도 한국 부품소재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한일 부품소재 교역 동향>

다음은 한일 부품소재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대일본 부품소재 무역수지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 소재 무역적자가 2002년 53억 달러 적자에서 2009년 117억 달러로 적자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6년 이후 부품 무역적자 폭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일수입중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현재 6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도 상승하고 있어, 대일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흑자 또는 균형을 이루는 반면, 대일무역적자

는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보완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높은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및 기술 등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 전개하는 등 기업경영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걸친 신 시장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국 내 독자적 기술 활용의 제약에 따라 원활한 사업 전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게다가 한중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기술력 및 제품 제조 능력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치열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대일 핵심부품소재 역조심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한일간 부품소재협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제품은 중국의 급속한 캐치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일본제품과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입장에서 한일은 부품소재의 조화를 통한 동아시아 등 신 시장 발굴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현안 과제인 FTA체결을 위한 사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 간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부품소재전문위원회 활동 개요>

한일 양국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가 양국 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 할 것

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에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회의체인 우리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간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협력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부품소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한일부품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대일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부품소재 분야의 한일 협력 채널 강화,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해 부품소재산업 협력을 위한 세부 협력 과제(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기본방향>

부품소재전문위원회에서는 한일 간 협력 방향에 대해 크게 네 가지 기본방향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全地球的 차원에서의 미래기술에 관한 대응입니다. 탄소절감이나 환경처리, 신 에너지 개발 등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全地球的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수요공급 기업 간의 새로운 연계협력입니다. 산업발전과정에서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과 경쟁의 틀속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산·학·연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기업 차원의 교류를 한 단계 높여서 ‘한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간 조달거래체계의 개선입니다. 조달상담회, 한일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등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공적레벨의 정보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부품소재전문위원회 제안내용>

이상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한국측 부품소재전문위원회에서는 한일 간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일 간 M&A활성화 추진입니다. 한국의 부품소재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시장을 확보하고,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국기업의 자금 및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경영난에 처한 일본기업의 경영을 활성화시켜 일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으로서 기업 간 인수합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매각이 경영책임 포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한일 부품소재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추진입니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측면만으로는 더 이상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모듈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공동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양국 간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한일 지역 활성화와 국제교류를 동시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국간 부품소재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부품소재 통계분류 체계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대해서 입니

다만, 양국의 경제 통계는 경제 정책 수립 기획과 추진, 그리고 평가에 필수적인 기초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의, 통계 분류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통계분류 비교표 작성을 통해 한일 간 산업구조 분석의 동일한 시각에서 양국 산업을 보는 시각을 도출하고, 향후 한일FTA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품공용화 추진 및 표준화 인증에 대해서 입니

다만, 최근 세계 주요국 등은 자국의 표준과 규격을 국제 표준인 ISO에 부합시키거나 협상을 통해 지역 간에 공통 규격화 현상이 일반화 되는 추세입니다. 한일 양국은 부품소재산업의 국제 시장 선점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부품공용화 추진에 대한 협력 방안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공동연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한일 부품의 상호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로서의 '아시아 통합인증시스템'의 활동 강화에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한일 연구기술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한일 간 연구기술인력 교류 확대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를 통한 긴밀한 경제관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OB엔지니어의 한국부품소재기업에 대한 기술어드바이스는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일본 완제품 경쟁력 제고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한일 양국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재 육성 및 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 재단의 사업예산 확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09년도 대일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망 사항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일 비즈니스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무역업체 및 일본 현지 기업 등으로부터 일본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이 해결되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이를 계기로 향후 한일FTA에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발언을 계속해서 한국측 부품소재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덕근 센터장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韓日部品素材産業 및 對日貿易投資活性化를 위한 提案(案) 說明』

이덕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부품소재전문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오늘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아소 চে어맨이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 드렸고 또 한국측 제언에 대해 오영호 চে어맨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저는 중요부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간의 부품소재산업의 협력방안과 대일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한 요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소재협력방안입니다만, 그간 한일간에 부품소재협력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협력이 되어 오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간 협력이 되어 온 부분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설명 드린다면,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일 수요와 공급기관간의 공동개발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어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달공급상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MOU를 맺어 민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부품소재공동펀드조성에 관해서 그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이 되는 기울여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전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M&A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에 미국의 민간조사기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M&A가 35년만에 가장 큰 성과와 계약 성사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중국 3국에서 앞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이 M&A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지원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후계자의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 경영승계원활화법을 2008년 10월에 제정을 해서 재생을 지원하고 이것이 기업재생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M&A는 양과 질에 있어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M&A가 최근에 수량 면에서 약간 줄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건당계약금액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내실 있는 M&A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그동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회를 결성해 펀드조성을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활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M&A의 워크숍을 금년 4월 1일에 개최한 바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M&A연구회가 지금 가결성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곧

발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M&A펀드결성을 위해서 실무그룹이 활동을 착수했고, 또 글로벌M&A데스크를 통해서 정보제공이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M&A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금년 4월에 착수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사전활동이 한일전문가그룹들이 참여해 좀 더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으로 발전되길 바라고, 또 이미 몇 년 사이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 산하의 M&A연구회와도 한국M&A가 본격적으로 연구교류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측과 M&A협약이 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저희도 실무전문가그룹을 본격화해서 펀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과 사전상담, 교육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부분에 있어 서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일부품소재 클러스터간 연계협력입니다. 이 클러스터 연계협력은 그 동안 한일간의 기업간, 기관간 개별차원의 협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보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형태로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은 2020년까지 제 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혁신클러스터가 12개 있고 그 밑에 소규모단위의 미니클러스터 활용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54개의 미니클러스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 20개정도의 클러스터 활동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클러스터간 협력은 국내에 국한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JETRO가 로칼 투 로칼(LL)사업을 2

003년부터 2006년까지, 리저널 인더스트리 타이업(RIT)사업을 2006년도부터 로칼 투 로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일본의 이시가와현과 대구시가, 나가사키현과 대전시가 각각의 클러스터간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입니다만, 일본의 타마클러스터와 한국의 한양대학교간의 인재육성이나 비즈니스창출 유형의 공동클러스터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이들 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 이 클러스터활동에는 조금 더 발전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뉴비즈니스창출연구회를 양국에 설치해서 일본의 JETRO가 운영하고 있는 RIT 사업과 한국의 부품소재신뢰성사업이라고 하는 양측 자금을 활용해서 클러스터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대상분야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의료환경분야와 자동차부품, 모듈을 포함한 태양광부품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다음 부품소재 통계분류체계 연계 및 공동 활용입니다. 컴퓨터용CPU가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기계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은 사무기기부품으로 분류되는, 이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같은 수준의 레벨에서 통계가 잡히지 않고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다 요스케 박사가 연구한 상품분류의 개정에 따른 무역통계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2001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실질적, 객관적, 기술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통계분류체계의 양국의 접근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품공용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PASC(태평양지역표준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것 보다는 한일간의 직접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KS와 JIS가 상당히 근접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이한 부품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표준화인증은 그 동안 한일간에 상당부분 대행을 하거나 상호인증을 하는 것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국제인증제도(IECEE-CB)에 의해서 인증되는 경우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상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아시아네트워크포럼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가 참가하고 있지만, 보다 일본과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의 통합인증시스템을 가지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연구기술인력 교류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의 내막을 잠깐 살펴보면, 일본의 기술자연수와 퇴직기술자의 활용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걸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해서 확대해 가는 것을 제안 드리고, 특히 양국 재단의 인재활용 진흥기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전문인력 확충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온라인비즈니스망을 확충해서 조금 더 액세스가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일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요망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에 논의가 된 사항을 그 동안에 해결이 되었거나 또 양국정부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논의를 진전시켜 수정 보완한 내용을 오늘 다시 집약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상호인증입니다. 국제물류에 있어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AEO제도는 한일양국의 관세청이 공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AEO제도의 인증여부가 앞으로 무역거래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AEO제도를 양국이 공히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업을 도출해서 양국이 협력해서 시행하도록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재검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 FDA 등 국제적인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본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나 정비 및 완화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본항운협회와의 사전협의제도입니다. 외항선사의 하역사 선정에 있어 일본항운협회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역사의 서비스퀄리티 및 하역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일본항운협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체제로 외국선사의 입장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관절차에 있어서는 상품통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개선 요망 드립니다. 그

리고 자동차용 카메트 원단의 무관세적용에 있어서 롤상태의 시트원단뿐만 아니라 정방향으로 재단한 카메트에 있어서도 무관세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특수차량의 일본국내 임시운행허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특수차량에 대해 국내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만큼 일본도 동수준으로 허용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공공공사 및 대형건설 발주시 일본 철강재 지정에 있어 검사증명서등 국제적인 검사기관으로 받은 인증서를 상호인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회사의 발전설비 입찰시 관행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 사이에 오래된 관행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준에 맞춘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선임기술자의 건설현장 배치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공사현장 상주가 어려운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업체에 대해 자격요건 완화를 요망합니다. 한식요리사의일본취업비자 발급조건을 현재 10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5년이상의 실무경험자로 완화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래 단장** : 이덕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이치마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단장** : 두 분의 চে어맨과 주사님께서 아주 내용이 풍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질의응답을 해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두 의장의 판단으로 지금부터 10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1인당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高杉 暢也(TAKASUGI Nobuya)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코멘트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소 চে어맨이 말씀하셨듯이 액션플랜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한 걸음 더 나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젊은 인재의 고용촉진 그리고 인재에 대한 상호인증 승인인데요. 오늘 말씀은 6월까지의 제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하고 공동으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정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매우 애매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신산업무역회의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액션플랜을 다카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팀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양국정부와 기업에 정말 단추를 잘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소 চে어맨을 중심으로 노력을 계속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ASO Yutaka) 아소라파주시멘트(주) 사장**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두 분 회장님께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움직일 생각입

니다. 그리고나서 정부에 건의하고 조율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욕, 실제로 이것을 구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역시 국익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이 너무나 취약한 글로벌 대응력, 이런 것을 한국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기업 내에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하는 식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카스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 양국 두 분 회장님께서 승인하시고 나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만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1팀장** : 지금 자격증 상호인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하고 IT직 중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에 이미 자격증 상호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5년 정도의 한국 청소년의 일본으로의 취업률을 보면, 500~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IT쪽의 취업인원이 9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 IT자격은 상호인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정부에서는 각 국가별로 FTA를 체결할 때 자격상호인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리한 점이 일본의 자격제도하고 한국의 자격제도가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자격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 상호인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도 확대해 가는 것이 좋고 이것도 한국정부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먼저 선도해 나가주면 한국정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ASO Yutaka) 아소라과슈시멘트(주) 사장** : IT분야는 초급 쪽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전례가 나오면 뒤를 이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단장** : IT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초급과 중급에 대해서는 상호자격 승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급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외에도 관광, 간호, 환경 등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도 산업계에서도 이번 양국정부에 대해 필요성을 호소하는 데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유준모 Eco Green Co.Ltd 이사** : 저희 회사는 일본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자와 관련한 업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대두가공, 육류라든지 김치 등 식품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95%가 일본인이고 5%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5%의 한국 기능기술자가 95%의 일본인 고용사원에

게 기능을 전수하면서 한국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확충하고 넓힌다는 측면에서 재작년에 6명의 한국 기능직사원들을 뽑았습시다만,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일본현실에 맞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명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국관리원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일본고용관리법에 맞게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뽑아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35~40세 한국직원들이 일본현지에서 적응하는 적응률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내지 2년 계약에 전부 회사를 그만두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비자인증 가이드라인을 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라든지 유학생, IT인중에 대한 인재교류는 적극성과 개방성이 있는 반면에, 기능직 취업 즉 전문대학 졸업자라든지 그 이하의 기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정세 및 일본인 고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 보수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처럼 일본에 진출해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에서는 년 2만명의 식품관련 학생들과 청년인재들이 일본진출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시켜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제안도 있었습시다만, 인턴사원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다카다 선생이 말씀하신 자격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도 많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일본에서 주당 4시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일본조리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리사자격시험에서 일본식품위생법규, 공중위생 등을 공부해서 일본 내에서 1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저희들에게 확보될 수 있다면 일본국에도 공헌할 수 있고, 저희 회사로서도 비즈니스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재교류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飯島 英胤 단장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측의 자격상호인증의 4번째 항목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군요. 그럼 유감스럽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 등을 포함해서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조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조회장님도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신산업무역회의는 원안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9년 양협회의 활동에 대한 일반보고를 후루가와 전무에게 부탁드립니다.

## (2) 일반경과보고(협회활동)

古川 洋三

(FURUKAWA Hiromi)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양협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경과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정말 부족한 관계로 이 자료는 여러분이 따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저의 일반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경과보고 전문>

#### I. 한일·한일 양협회의 공동 사업

##### 1. 한일경제인회의

제41회 경제인회의는 2009년 4월 16일~17일 이틀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 단장 등 188명, 일본 측으로부터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124명이 참가하였다.

##### 2.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 (1)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① 제13회(2009년 7월, 한국) 참가자 : 88명
- ② 제14회(2010년 2월, 오사카) 참가자 : 88명
- ③ 과거 14회의 총 참가자 수 : 1,283명

###### (2) 한일학생미래회의

- ① 제 4회 한일학생미래회의(2008년 8월, 한국 부산) 참가자 : 39명
- ② 과거 4회의 총 참가자 수 : 117명

(3) 본 사업은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일본 정부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년대교류계획」의 일환으로서 외무성 예산으로 실시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충실화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본 건에 대해서는, 한일 양 협회로부터 별도 보고한 바와 같음

## II. 일한경제협회 단독 사업

### 1. 일한경제심포지엄

한일의 경제교류를 비롯한 양국의 한층 더 긴밀한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제3회 일한경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도 시의적절한 테마로 개최(9월 예정)

- (1) 개최일 : 2009년 10월 15일
- (2) 주최 : (사)일한경제협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3) 테마 : ‘한일 산업·지역간 교류의 활성화 업그레이드를 위해’
- (4) 세션별 테마·강사
  - ① 제 1 세션 「산업간 교류 활성화」
    - 하야시 히로시게(林廣茂) 도시샤대학대학원 비즈니스 연구과 교수
    - 이형오(李亨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② 제 2 세션 「지역간 경제교류의 활성화」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紀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 이이즈카 마코토(飯塚 誠) 큐슈지역 환경리사이클 산업교류 플라자 클러스터 매니저
    - 양성봉(梁聖奉) 울산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장
- (5) 한일의 경제계·관청 등에서 약 200명 참가

### 2. 조사·홍보 활동

회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이

하와 같이 실시. 향후, 더욱 확충 예정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 ① 협회보(월간)
- ② 한일경제협회통신(주보)
- ③ JKE 리포트(부정기)

(2) 회원 간담회 개최(연간 4회) → 연 8회 개최

회원들이 평상시 접할 기회가 적은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의견교환

(3) 협회 홈페이지의 충실화

협회의 홍보수단으로서 홈페이지를 충실화하여 접속건수가 증가

### III. 한일경제협회 단독 사업

#### 1.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개의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협력, 비즈니스 매칭, 전시회 상호 파견, 기술자 연수, 관광 홍보, 산학관 제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1) 제 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9. 9. 10(목)~13(일), 강원도 원주시
- 목적 : 일본 호쿠리쿠(北陸)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81명
  - 2000년 토야마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1,708명 참가(韓 745명, 日 963명)
- 내용 : 민관합동회의·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기관 실무자협의(IT·기계, 비즈니스교류, 물류·관광), 한일 클러스터 포럼, 기업간 상담회,

기업 시찰 등

(2) 제16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9. 10. 7(수)~10(토), 광주광역시
- 목적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90명
  - 1993년 기타큐슈시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총 1,916명 참가(韓 786명, 日 1,130명)
- 내용 : 경제교류회의, 금형분과회, 기업시찰 등

(3) 제 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9. 7. 14(화)~17(금), 중국 옌타이시(烟台市)
- 목적 : 한중일 환황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
- 참가자 :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10명
  - 2001년 후쿠오카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9년간 총 3,022명 참가(韓 794명, 日 1,028명, 中 1,200명)
- 내용 : 경제교류회의,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포럼,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과학기술포럼, 항만교통물류경제 협력 포럼, 중국제품 구매상담회, 서비스 아웃소싱 설명회, 기업시찰 등

#### 2.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회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아래와 같이 실시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 ① 한일경제협회 소식지 발행(계간)
  - 협회 사업안내 및 실적, 회원 동정, 일본의 뉴스, 기획연재, 한일 통계 등
- ② 주간일본동향(Japan Weekly Digest)



제공(매주)

- 금주의 이슈, 일본 정재계 소식, 기업 동향,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등

③ 일본지식리포트 제공(수시)

- 경제통상, 산업기술, 비즈니스, 정치외교, 사회문화

④ 조사 및 연구보고서 제공(부정기)

- 일본 중견기업의 성장사례연구
- 일본기업은 어떻게 엔고에 대응하였는가?
- 협회 사업 개최결과 보고서 등

(2) 회원사 간담회 개최(연간 2회)

- 회원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명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의견교환을 실시

3. 한일친선교류 활동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회장단 정례 행사 실시(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 간담회 1회, 친선교류행사 2회)

**사회** : 이이지마 의장님, 조의장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9:00부터 예정되었던 리셉션은 15분 늦춰 19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장과 옆의 방을 합쳐서 리셉션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칵테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드시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을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일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전체회의 제1세션이, 그리고 제2세션이 13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점심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회식이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제1세션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와 한일관계」라는 테마로,

제2세션에서는 「향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이라는 테마로 이 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셉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제 1 세션

테마 : 『東아시아 經濟連帶(共同體)와 韓日 關係』

사회 【古川 洋三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한경제협회 후루카와 히로미입니다. 먼저 제1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통역 수신기는 일본어가 1번, 한국어가 2번 채널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바꿔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1세션의 사회자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아 주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한국경제 전문가이십니다. 1981년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신 후 예일대학 대학원,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와세다대학 졸업 후에는 일본무역진흥회,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그 후 아오야마대학 조교수, 동경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모교 와세다대학에서 교수로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자문위원으로서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양국의 발표자를 시간관계상 직책과 성함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의 가와이 마사히로 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도레이의 이사를 맡고 계신 우에노 켄지 국제부문장입니다. 이어서 한국측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경태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삼성물산 자문역으로 계시면서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 이수철 자문역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1인당 20분입니다.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만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1) 좌장 인사

深川 由紀子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 정치경제  
학술원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후카가와입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측로부터 두 분, 한국측으로부터 두 분이 차례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안좋다 보니까 벚꽃이 오랜 시간 동안 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면서 지냈습니다만 이렇게 날씨가 안좋아도 벚꽃은 피는 법인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가 어쨌든 간에 일본 경제도 이렇게 벚꽃처럼 끈기 있게 잘 견뎌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같이 가까운 나라와 잘 지내는 것이 일본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가와이 마사히로 소장님께 『東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 (2) 일본측 발표

『東아시아 經濟連帶와 日韓經濟協力』

河合 正弘  
(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가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런 모임에 초청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세계금융위기의 임팩트와 일본·한국의 성장전략, 동아시아경제연대, 한일경제협력이란 순서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카가와 선생님께서 제 발표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5번째 단락인 한일경제협력에 가능한 초점을 맞추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금융위기의 임팩트와 일본·한국의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전체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세계의 금융위기와 수출지향형의 아시아 경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합니다만 커다란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경제는 과거에는 과도하게 구미시장에 의존하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탈피를 해서 아시아 내수지향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모델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수출이나 내수·외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광역적인 경제통합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토대로 아시아에 광역적인 경제금융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경제협력체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약간 언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금융위기의 임팩트 IMF는 세계경제가 2010년 2011년에 회복해 나간다고 예측하고 있고 향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미의 과대한 소비를 기초로 한 성장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권내 국가들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통화위기에 빠진 국가는 없습니다만, 2008년 가을에 한국은 미니 통화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에 있어서도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과거 수출이 되겠습니다만, 역내무역이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시아 역내무역의 대부분은 중간재·부품·부재 등입니다. 이러한 중간재 무역은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최종제품으로 만들어져 다시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미의 최종제품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ADB의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의 무역 중에 최종적으로 2/3 정도는 구미시장에 최종제품으로 가고 있고 아시아 역내에서 소비된 것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 GDP비율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수입 GDP비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졌고 성장률도 많이 저하됐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초로 일본이나 한국 모두가 성장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아주 일찍부터 나

왔습니다. 일본이 이를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구미시장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닌 형태의 성장을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탄소형 경제라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아마도 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야인 의료, 간호, 보육 등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탄소형 경제로 가는 사회부문을 보완하려면 의료, 보험, 연금, 교육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된 문제입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아세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일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및 고령자의 수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바닥에 와 있으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경에 바닥을 쳤고 조금씩 늘고 있고 한국은 조금 늦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합계특수출생률은 평생 동안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들의 수는 1.3 정도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나쁜 경향입니다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일본은 GDP대비 18% 정도입니다. 이것은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서 21위입니다. 한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동아시아의 광역적인 경제연대가 필요합니다만 각국이 자기나라만을 시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시아 전체를 시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아

전체의 수요를 우리가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 모두에 있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를 일체화 시키면 상당히 시장이 커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저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1,400조엔 이라는 저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아시아 투자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인프라 방면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일이 같이 녹색 아시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008년 가을에 일어났던 통화적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경제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의 매력은 아무래도 다이내믹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간계층과 고소득자계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산계층과 고소득자계층은 세대당 소득이 5,000불 이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90년경에는 아시아 전체에서 3억명밖에 없었습니다만 2008년경에는 11억명에 이르렀고 90년경의 3억명 중 대부분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대적인 점유율은 저하되고 중국, 인도가 상당히 늘었고 한국은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에서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이 시장을 일체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아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광역적인 경제연대협정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역내시장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연대협정

을 만들어가면서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는 구조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픔을 수반하게 되는 반면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구체화되고 기술이전이 진전되며 무역의 기준, 규칙 등이 표준화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역내의 전체규모의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1EPA 혹은 FTA를 만들어갑니다. 한·중·일이 함께 아세안+3나 아세안+3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세안+6로 광역적인 EP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광역적인 경제연대협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아세안과 한국이 FTA를 체결할 시 이점은 비교적 작습니다. 아세안하고 일본이 협정을 체결해도 별로 이점은 많지 않습니다. 아세안하고 중국이 체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아세안+3가 되면 상당히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세안+3보다 아세안+6가 더 이점이 많지만 아세안+1보다는 아세안+3, 그리고 아세안+6로 간다면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광역적인 인프라 스트럭처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ADB/ADB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필요한 인프라 투자자금은 총 8.3조 달러입니다. 1년에 7,500억달러가 됩니다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일본 등의 민간저축을 동원시키기 위한 아시아·인프라 투자펀드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일체가 되면서 아시아의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부문의 초점을 맞춘 성장을 일으켜 나가야 합

니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투자, 의료, 보험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가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금융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8년 가을에 한국에서 발생한 미니통화 위기 시 환율이 1달러 900원에서 1,500원 까지 오르고 외화 보유고도 바닥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시다만 한국은 이를 극복했습니다. 한일경제협력에 대해서 한일양국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탄소형사회의 이행 및 저출산 고령화문제, 통화·금융협력에 대해서도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우리가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경제연대협정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투자를 보면 무역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무역은 점유율이 작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대일무역점유율은 큼니다만 최근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중국이나 아세안에 대해서는 많이 신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에 비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오는 직접투자에 있어 최근에는 아세안이 상당히 많습시다만 한국은 약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무역투자는 아직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확대시켜나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연대협정은 2003년에 협상

이 개시되었으나 2004년 11월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측의 문제점은 한국측이 요구하는 공업품, 농수산물에 대한 자유화에 대해 공업품은 가능하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부품·소재분야의 대일수입이 확대되어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양국간의 무역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간의 무역밸런스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일적자가 많습시다만 대중국(홍콩을 포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부품·소재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국간의 밸런스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시장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는 현정권의 호별소득보장이라는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FTA나 EPA하고 연계하고 tie-up하면서 농업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과제인 국내의 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 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일본은 이를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금융협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2008년 가을에 발생한 미니통화위기와 같은 사항을 앞으로는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다국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폭적인 원·엔 환율의 변동은 2005년 이후 원·엔의 환율이 역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양자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모

두 엔케리 트레이드 정책을 실시하여 통화변동을 피하는 그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관 특히 IMF와 세계은행에서 아시아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투표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다른 아시아국가와 협력해서 IMF의 전무이사를 아시아에서 배출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제적인 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고 경제발전의 모델에 있어서도 양국의 성공적인 체험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특히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한국에서 G20서밋이 개최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APEC서밋이 개최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연계하면서 G20서밋과 APEC서밋을 서포트하면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지만 아시아에서 볼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문제와 안전보장문제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특히 신흥아시아와의 경제연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미국이 아세안+3나 아세안+6에 들어가면 오히려 곤란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APEC이 있고 아세안+3와 아세안+6가 있으며 밖에는 APEC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APEC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아시아에서는 아세안+3나 아세안+6가 확립된 후에 NAFTA나 EU와 연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처럼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측은 미국에 대해 FTA의 체결을 제의하고 동시에 아세안+3나 아세안+6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로서 세계

경제위기에서 구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일양국은 구미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양국은 제조업이 강합니다. 특히 기계산업 분야와 같이 기술부문을 서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분야, 서비스산업이라든지 녹색산업, 의료, 간호 등의 분야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일양국은 상호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해 나가고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광역적인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인프라 조성에 노력을 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AMF로 확대를 하고 환율협조 등을 통하여 아시아에 활력을 줘야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미국과도 폭넓은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가와이 소장님 감사합니다. 글로벌리즘하고 리저널리즘 속에서 한일관계라는 테마로 아주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레이의 우에노 겐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 (3) 일본측 발표

#### 『東아시아經濟連帶(共同體)와 韓日關係』

上野 健次

(UENO Kenji)

도레이(주) 이사

국제부문장



방금 소개받은 도레이주식회사의 우에노라고 합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의 경제계 Top 여러분이 모이는 정통 있는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1세션 테마인 동아시아 경제연대 및 한일관계를 정면으로 논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저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전개사업,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레이의 글로벌경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레이는 유기합성화학, 고분자화학, 바이오테크놀러지, 나노테크놀로지 등 4개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재료를 개발하여 글로벌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종합화학기업입니다. 도레이그룹의 2009년 3월 분기의 연결매출은 1조4,716억엔 정도입니다. 당사의 창업사업인 섬유의 매출비율은 38%, 플라스틱·케미컬이 26%, 정보통신재료·기기가 16%, 탄소섬유복합재료가 5%, 환경·엔지니어링이 11%, 라이프 사이언스 등이 4%입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360억엔, 종업원수는 전세계에서 38,000명 규모입니다. 다음은 도레이그룹의 글로벌사업전개를 4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20개국 기업수 125개사의 해외매출은 약 6,800억엔,

종업원수는 2만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해외매출액 비율은 45%입니다만 하기의 원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주력소재생산에 대해서는 모두 해외생산량이 국내생산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생산거점은 오늘 테마인 동아시아가 중심입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도레이의 한국에서의 사업전개 상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레이의 한국에서의 사업은 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플랜트 수출을 시작한 제 1기, 코오롱·삼성그룹과 합작하여 섬유사업을 시작한 제 2기, IT소재사업에 진출한 제 3기, 그리고 소재·부품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거점까지 설립한 제 4기가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시작한 제 2기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오롱그룹과의 공조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도 장기에 걸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분야도 시대에 맞추어 진화되었습니다. 1997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제일합섬은 새한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한의 섬유/필름부문을 인수하여 도레이새한을 설립하였습니다. 동사는 아시아 통화위기 하에 한일양국기업이 협력하여 구조개혁을 통하여 고수익기업으로 성장시킨 양국연계협조의 상징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현재 당사의 해외관계기업 가운데서 규모와 이익이 모두 Top수준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9페이지에는 제 3기 IT소재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 2기의 사업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장기에 걸친 파트너십의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제 3기의 키워드는 전략적인



소재부품의 한국 국산화에 대한 공헌입니다.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이 한국의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사는 한국의 국책에 맞는 형태로 최첨단기술을 한국에 도입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액정디스플레이 패널용실장 회로재료가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도레이세한에서 회로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STEMCO에서 회로형성, 반도체실장, 서플라이 체인의 대부분을 한국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에 이르는 제 4기의 키워드는 첨단소재·부품산업의 발전·육성입니다. 당사는 재작년 8월에 첨단적인 소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한국내의 첨단적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부재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도레이그룹의 첨단재료연구센터(AMRC)를 설립하였습니다. 도레이그룹은 이 연구센터를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IT소재분야, 차세대 기능성필름, 태양광전지재료, 나노소재분야 등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한국국내의 첨단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연구자의 육성, 이공계인재의 고용창출에도 공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업 확대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많은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합작사업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레이는 11페이지에서 제시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방침이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의 사업을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진흥, 수출확대,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철학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작기업의 운영에 있어 한일양국 모기업의 최고경영자간에 장기간에 걸친 우호관계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합작이라도 현지경영은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 경영에 맡겨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노동력과 다양한 인맥을 포함한 모든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노조에 대해서도 경영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번영한다는 목적 하에 진척상황을 알려주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한국사업전개에 관한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다음은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란 테마에 대하여 역내에서 글로벌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동아시아를 둘러싼 광역경제연대 구상과 한일간의 위치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아세안이 있고, 그 위에 아세안+3, 아세안+6, APEC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 검토가 시작된 한·중·일FTA 등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든 틀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작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영향으로 급격한 신용경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가 일어났고 실물경제는 작년에 이어서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바닥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통화위기 전의 구미, 미국의 수요조과를 전제로 일어났던 투자환경은 크게 변화되었고 글로벌 인밸런스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구미 수출

사업은 위축되었고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앞서 가와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 없이 앞으로도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경제연대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성장인 동아시아 각국이 무역, 투자, 환경, 사람의 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추진하여 보다 발전을 지향하는 틀입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도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숙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양국의 산업계가 어떠한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업기술면의 협력입니다. 조금 전 도레이가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기업에 대한 산업기술협력은 그밖에도 전자, 전기, 식품, 화학, 철강 등 많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베이스의 협력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양국의 연계를 더욱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한일EPA, FTA의 추진입니다. 양국은 아시아역내의 선진국이며 양국 합쳐서 세계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EPA, FTA의 체결을 통해서 양국의 경쟁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향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양국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양국의 새로운 유망신규협력분야인 관광산업협력에 대한 확대입니다. 한류드라마의 붐을 통하여 양국민

간의 친밀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관광교류는 인제교류와 함께 양국민의 거리를 축소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에너지 절약분야의 협력입니다. 이 분야는 온실효과가스 삭감기술의 교류 등 앞으로 양국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서 당사와 같은 글로벌기업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테마는 첫 번째의 산업협력 및 두 번째의 한일EPA의 활용에 대해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한일EPA, FTA에 관한 자료입니다. 광공업품에서 한국이 대폭적인 수입초과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농업시장개방 문제가 있어 좀처럼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국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부가가치 높은 첨단적인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매우 많습니다. 단순한 양자간 무역상의 문제로 다루지 않아도 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가 한국에 기술이전을 한 IT소재·부품사업사례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그래프 내용입니다. 만일 한일FTA, EPA가 성립된다고 하면 일본은 한국에 첨단소재를 수출하게 되고 한국은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만, 한국은 일본의 첨단소재를 가공하는 부품·부채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국내IT산업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무역이 확대되어 한국내 부품·부채산업이 그림과 같이 커지게 되면 일본기업은 첨단소재부품을 일본에 수출할뿐만 아니라 한국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시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최종시장국에 대한 수

출확대를 계기로 해서 외국의 부품부재산업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의 무역과 직접투자를 기축으로 한 경제발전에 매우 좋은 순환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순환을 뒷받침하는 것이 EPA, FTA입니다. 양국간의 EPA, FTA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간의 EPA, FTA, 동아시아의 광역 EPA, FTA가 성립되면 무역과 투자같은 기업활동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성장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한일기업의 산업협력의 사례로서 합작에 의한 중국사업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레이와 도레이새한(TSI)은 한일합작으로 2006년 중국에 TPN(도레이 폴리텍 난통)이라는 부직포 제조·판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성장이 현저하고 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제·기저기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제조·판매하는 경쟁력있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투자하는 자본력, 생산력, 판매력 등 모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의 단독기업이 이러한 높은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기업의 강점을 융합시킨 회사를 출범시켜 경영력, 생산력, 마케팅력 등을 융합시켜 거대 글로벌기업과의 중국 비즈니스에 성공하였습니다. 경제연대가 추진되면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합작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바다가 넓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레이라는 기업을 벗어나서 양국섬유산업의 연계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섬유산업계에서는 1985년 이래 거의 매년 양국 섬유산업계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23차례나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아시아의 섬유선진국인 한일양국간의 협력, 공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

로써 글로벌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양국 섬유산업과제 등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EPA, FTA의 추진을 검토하는 워킹그룹을 2007년에 설립한 것도 이 회의의 성과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정부간 협상에 앞서 양국의 섬유산업계의 대표가 FTA, EPA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매우 선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양국의 섬유산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섬유분야에서의 FTA와 EPA의 기대효과를 검증하고 관세자유화 및 원산지규제 등의 의견교환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제계의 한 기업인으로써 산업계 및 경제계 전체로써 상호 이해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도레이의 오랜 한국비즈니스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이라는 시장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측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경태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4) 한국측 발표

##### 『東아시아經濟連帶와 韓日關係』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협력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생각을 같이 나눌 수 기회가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과 일본간에 지식협력이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번 세계경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연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경제연대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연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인식을 갖는 게 바람직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경제와 탈동조화 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위기가 오기 이전에 동조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동아시아 경제도 큰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 동아시아 경제의 탈동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

기가 나왔습니다만 2년 정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GDP성장에 대해서는 가와이 교수님의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IMF의 전망을 보더라도 작년도의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5%의 GDP가 감소했습니다만 아시아개발도상국들은 6.5% 증가되어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망을 보더라도 선진국들은 2.1% 성장이 전망되는데 비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약 8.7%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 작년도의 교역금액이 22.4% 감소했습니다만 중국은 16%, 한국은 13.9% 감소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만 일본은 제가 갖은 자료에 의하면 26.2%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아시아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를 놓고 흔히들 쌍발엔진에 비유를 했습니다. 엔진이 2개 있는 여객기라고 볼 수 있는데 쌍발엔진은 미국과 동아시아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가 주된 역할을 하는 단발엔진으로 점점 더 이행해 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퍼네셀 타임즈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까지 G7국가들이 세계경제성장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12.8%에 그칠 것이나 BRICs 국가들은 기여도가 61.3%가 될 것이다 그런데 BRICs중에서 저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며 결국 중국과 인도의 역할이 클 것이고 여기에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하면 앞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50%를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국가의 세계경제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책임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IMF라든지 국제사회에서는 아시아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글로벌 인벨런스 및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렇고 책임론,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책임을 얘기할 때 동아시아 외부에서 책임을 요구받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뭔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갖는 책임은 우선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없이는 동아시아경제의 번영도 없기 때문이고 동아시아 경제가 갖는 전인 역할이 커짐에 동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주어야 세계경제도 따라서 성장과 번영이 가능하며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아시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책임은 지금 이제 위기가 지나가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G20정상회담이 중심이 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가 앞으로 퍼스트 크라이시스 세계경제질서구축 과정에서 지금보다도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동안에 동아시아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제 회의에서도 조석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의 가와이 소장님의 자료에서도 나와 있

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만 됩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내수를 더욱더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내 교역을 확대해서 동아시아의 역내수요를 창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EU시장에 대해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역내교역 의존도를 살펴보니 2008년도에 21.5%이던 것이 2009년도에 위기를 거치면서 22.3%로 역내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7%에서 23.9%로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6%에서 18.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한중일 3국간의 역내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중일EPA, FTA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EPA, FTA와 같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역내교역의 활성화가 훨씬 더 촉진되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마 한국이 EU나 미국등과 FTA협상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한국이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변화해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 역내경제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원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볼 분야입니다. 동아시아FTA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FTA를 하는 것과 치앙마이체제를 이

미 다자화했습니다만, 이 치왕마이체제를 보다 발전시켜서 통화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이 두 가지가 동아시아 공동체구축에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TA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아세안+3, 아세안+6, APEC이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은 트랜스포터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아시아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이런 나라들과도 협상을 개시하고 있고 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EPA,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아세안+3, 아세안+6라고 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추진해 가는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선진경제권이기 때문에 양국이 연대를 해서 먼저 EPA, FTA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일경제인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중일이 동시에 EPA, FTA를 추진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일본전문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중국은 시장경제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성숙되지 못해서 파트너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포용해서 중국의 경제체제를 더욱더 성숙된 시장경제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이 동시에 FTA협

상을 하면 협상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단순한 자유무역뿐만 아니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준수 등 이런 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협상의 아젠더로서 토의를 하면 그것이 중국을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일이 FTA를 하면은 동아시아 FTA는 매우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아시아가 갖는 책임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위기과정에서 동아시아는 피해자입니다. 월스트리트나 런던 등에 소위 말하는 투기적인 금융자본들이 카지노 캐피탈리즘에 의해 은행이 손실을 보면 미국은행들은 1조달러가 훨씬 넘는 손실을 받았고 EU도 거의 8,000억달러의 손실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동아시아 쪽은 1,6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은행들은 본래의 기능이 뭔지 예금자들의 예금을 모아 산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본래 은행의 역할인데 한국이나 일본의 은행들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왔기 때문에 유럽발,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20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포럼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혁이 중요한 아젠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아시아의 금융기관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경험과 지식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등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국제금융체제개편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

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체제개편과 은행개혁방향에 있어 동아시아지역 이외의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지식연대, 정책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중의 하나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입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재정적자는 조금 높습니다만 그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G20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재무장관회의와 같은 여러 가지 준비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한중일 3국의 제 3차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EPA, FTA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미 공동연구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자고 합의를 봤으니 1년 정도 공동연구를 하여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EPA협상을 개시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월 G20정상회담과 그 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금융개혁이 가장 중요한 아젠더가 될 것입니다. 이 아젠더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공동으로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국제금융질서를 개혁하는데 아시아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활용해서 세계경제안정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동아시아가 갖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경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도 강하고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경험도 많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입장에서 봐도 일본경제가 다시 재부상하고 재도약하는 것이 동아시아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가와이 소장님의 말씀을 보완하시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전체적인 협력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맥락에서의 한일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정말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보완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측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이수철 자문역님께 부탁드립니다.

## (5) 한국측 발표

### 『東아시아 市場에서의 韓·日企業間 비즈 니스 協力方案과 役割』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최근 한일 양국 기업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부구조동아시아의 한일 양국 기업 특히 제조 기업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양국 기업들은 좋은 제품으로 선진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이 축소되고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 시장이 크게 부상함에 따라 양국기업들도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선진국 시장 침체로 인해 주력시장을 신흥국으로 옮기는 소위 '불륨 존'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경제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신흥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략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처하

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주력한 반면 한국 기업은 신흥국 시장에 주력하는 분할구도로 한국기업들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불륨 존 전략을 선포하게 함으로서 한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등 신흥국 현지 기업들의 약진으로 인해 한국기업은 새로운 '샌드위치'의 입장에 처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체인지가 불가피한 급박한 상황이지만,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인 동아시아 경제 전체를 키우고 활성화 시키며 나아가 양국 기업이 서로 WIN-WIN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양국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은 신흥국 시장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IMF의 추정에 의하면 선진국의 명목GDP 비중은 2009년에 53.8%에서 2014년에는 49.3%로 줄어드는 반면, 신흥국은 20.4%에서 24.8%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흥국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의 공략은 한국기업이든 일본기업이든 지상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양국기업에 의한 치열한 경쟁과 경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편 신흥국 시장에서의 과다 경쟁은 가격저하와 과잉설비를 초래해 시장 전체를 훼손시키며 서로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경제는 한일중 3국이 앞장서서 서로 협력하여 조조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한일 양국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WIN-WIN하는 방안을 구축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비교우위를 살려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닛케이 비즈니스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기업들이 제품생산은 물론 중국 등지의 신흥국에 공장을 짓는 등 생산과 설비투자를 강화하자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른바 「한일중 트라이앵글 경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교우위 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액정패널에 관련된 일본의 부자재·장비 업체가 한국의 호경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트렌드는 현재의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양국 기업의 협력이 기대되는 화학이나 에너지 관련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현상은 한국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에 있어서 일본기업들보다 비교우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 자동차 등의 최종재에 있어서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의 약진은 일본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매년 300억 달러를 넘나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이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약간의 성과를 올리고는 있으나 이 또한 일본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한일 양국기업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살려 협력하고 분업하는 구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과의 분업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중국·아세안 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으로의 진

출 시에도 한일 양국기업이 협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볼륨 존’ 전략의 진수는 현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펙의 상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간의 협력이나 현지 기업간의 협력은 물론 일본의 최종재 메이커가 한국의 중견·중소 소재·부품 메이커와 동반 진출한다든지, 또 역으로 한국의 최종재 메이커가 일본기업들과 동반 진출하여 신흥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국기업은 자본과 마케팅을 그리고 일본기업은 기술과 부품과 같은 기능적인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위협론’이 회자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의 성과가 일시적으로는 위협으로 비칠지 모르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또 일본기업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업의 비교우위 구조가 빠르게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든 경영 활동이나 자원을 자국에서 해결하는 ‘원 세트 주의’ 또는 일본어로 ‘지마에(自前)주의’의 인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과 소비자의 니즈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치사슬상의 자국의 비교우위도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부가가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기업들이 신흥국 시장에 한정된 파이를 서로 빼앗기 위해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서로 WIN-WIN 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볼륨 존’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기업들이 경쟁우위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반도체나 각종 액정패널과 같은 분야에 산업 클러스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의 부자재 메이커나 장치 메이커는 생산기지에 밀착한 기술개발과 현지생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재 메이커와 밀착하여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소재·부품 메이커들은 한국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노하우를 얻는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공정 케미컬제조업체가 일부기술을 한국에 제공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LCD, LED 사업분야에서 편광필름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여 공동생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자메이커가 전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너지 관련 사업은 한국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따라서 각종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정부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거점을 한국에 두는 것도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비즈니스를 개척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코스트 삭감은 물론

물류 시간을 단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기업들이 몇 년 전에는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블랙박스 전략’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전략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뉴스에 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환영할 기업인은 없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기술만이 최상의 기술이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의 효용가치가 높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 효율이 급속도로 저하하고 있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효율화를 기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던지 사업장의 위치를 옮겨야 하는데 최근 일본 화학업계의 굴지의 회사인 코스모석유가 현대정유와 합작으로 화섬원료사업을 하기위해 한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으며, 일본 최대의 석유화학회사인 일본석유가 한국의 SK에너지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제환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저는 역으로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진출할 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한국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2008년에 니가타에 있는 “묘도메탈”을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

습니다. “묘도메탈”이 생산한 훌륭한 제품의 판로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묘도메탈” 사례는 기술과 생산은 일본에서 그리고 자본과 마케팅은 한국기업이 담당하는 분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한국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일본으로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기업으로서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300억 달러 전후의 대일 무역적자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한일FTA가 잘 진전되지 않는 것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기업들도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소재·부품·장치 등의 분야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자계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철수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2009년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년대비 55.7%나 줄었다고 합니다. 비단 직접투자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부터도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철수하는 분야를 보면 자동차나 타이어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日本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연료전지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인 A·T·커니가 글로벌기업 1,000사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국의 투자매력도 조사를 보면 일본이 2007년에는 15위였으나 2010년에는 랭크 외인 26위 이하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 아시아계 기업의 일본 진출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蘇寧電器”가 일본의 가전양판점인 “라옥스”에 출자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태양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업체들도 일본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은 아시아 기업들의 이러한 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대한 투자는 예를 들면 신흥시장처럼 투자효율이 결코 높은 시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을 단기간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자계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또 고령화로 일본의 내수시장에 대한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는 물론 일본에 진출하려는 아시아계 외자계 기업들에게 법인세의 감세, 지역진출기업에게는 고용수당과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일본 국민들의 아시아계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후진국인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일본기업을 매수하는 데에 대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코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존의 저팬스탠더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도록 제도와 규범, 가치관을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가라파고스화’ 현상은 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 활력의 주역이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 오늘 저는 양국 기업이 동아시아로의 진출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점, 그리고 양국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의 성장 센터인 동아시아 시장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자는 점, 그리고 양국 기업인들은 각각 양국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을 확보하자는 점, 이를 지원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한일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이수철 자문역님,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종사해 오셨기 때문에 커다란 구조전환기에 있는 양국기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 (6) 자유 토론

**좌장 :**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과 한일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 부분은 선진국 시장에 따라서 앞으로는 동아시아시장이 선진국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으로서의 힘을 가자고 성장을 견인해야 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양국이 협력을 해야 할 여지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발표하신 네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협력하는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측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협력에 관해서는 큰 이론은 없을 것입니다. 그 대상은 동아시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론은 없다는 점은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두 분의 발표는 한일EPA, FTA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한국의 두 분은 직접적인 한일 FTA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만큼 적극적인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일간의 분위기를 솔직히 나타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가지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비교적 차이가 없었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광역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와이 선생님

과 이경태 선생님께 여쭙보겠습니다만, 특히 가와이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아세안쪽이 훨씬 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3나 아세안+6와 같은 아세안 비중이 큰 광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한중일이라는 비중이 훨씬 큼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협력을 생각할 때 한중일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 하면 좋은지에 대해 두 분께 듣고자 합니다. 이경태 선생님은 한일공동연구는 못하셨는데 한중일 공동연구는 계속 해오셨습니다. 한일간의 대화와 한중일의 공동연구가 시작된 것이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된 시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관심사는 한일인데 한중일로 시야를 확대했을 때 한일협력도 진행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이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河合 正弘(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 한일FTA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만, 일본과 중국의 FTA에 관해서는 중국은 일본과 FTA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본측의 대응은 적극적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는 일본이 하자고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게 있어서는 농업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본과 중국간에는 농업문제에는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투자 보호 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또는 제대로 계약을 이행해줄 것인지 아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러한 문제가 중국측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측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것은 역시 한국에게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이점이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관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농산품을 제외합니다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본 한국의 매력은 상당히 큰데 한국에서 본 일본의 매력은 그리 크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중일 3국에서 함께 하려는 하기 쉬어진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걱정하고 있는 대일 적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 흑자를 내고 있고 일본과 중국간에서 양측의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일본은 중국에 대해 약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측에서 봤을 때 일본시장이 어디까지 매력적인 시장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카가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본은 아세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 온 지역이 아세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시프트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게는 역시 아세안과 중국을 균형 있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지금은 조금씩 인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바스켓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시켜서 되도록 리스크 분산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일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일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며 중국

도 인도도 역시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자리매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을 볼 때 시각과 일본이 한국을 볼 때 시각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일본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적어도 아세안+3 속에서 기업이 상당히 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의 매력의 의미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태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중일을 포함하면 한일관계는 잘 될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한일, 한중 양자 FTA하고 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통합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 양자간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 가와이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아직도 일본과 FTA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익의 균형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일협력을 위해서 FTA를 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크게 말하는데 나중에 결국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해보니까 한국도 이익이고 일본도 이익이고 그 이익이 균형을 잡아야만 국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비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관세도 상당히 낮고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양일간 회의에서 다 나왔습니다. 부품소재분야의 협력,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한국에 기대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연 FTA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회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한일신산업위원회에서 부품소재기술협력에 대해서 양국의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농업개방에 대해서도 일본이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면 저는 한일 FTA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조금 전 중국이 일본과 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일본의 마음여하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듯이 한중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중국이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마음먹으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하자고 하는데 결정은 우리 한국에 달렸다면 한미간의 FTA도 미국의회가 빨리 비준을 안해주면 중국과 먼저 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의 한국이 중국시장을 바라보는 변화는 그 동안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의 환급을 받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해도 관세철폐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공무역형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내수시장이 커지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중국은 아직도 관세가 높으니까 자동차는 25%되니까 중국과는 빨리 FTA를 해서 중국내수시장을 선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실적인 문

제는 중국과 FTA를 할 때 한국이 미국이나 EU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했습니다만 중국과는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수준을 낮추어 타협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자간의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연대를 얘기할 때 한일FTA, 한중FTA가 동아시아 FTA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한중일 FTA를 말씀드린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 일본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협상이 더 쉽다, 어렵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해 왔으니 한중일FTA를 먼저 하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더욱 촉진시키는 지역통합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들이 1년에 한번 모이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얼마 전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한국 내 내수만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일본과 FTA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되면 일본과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일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3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모두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수입하는 기업도 찬성하지요. 관세 2%라고 없어지면 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들의 응답이 관심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생각보다는 한일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았습니

다. 한일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일본시장을 좀 더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대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면 한일FTA 체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이경태 원장님은 KIEP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일 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무역협회로 옮기셨고 그리고 나서 현실에 뿌리를 내린 그러면서 현실감이 있는 긍정적인 그러면서 객관적인 뭔가 전향적인 조사활동을 하셔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으로부터 한일EPA, FTA라고 했을 때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자리매김이 다른 것 같다, 어떤 이점이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창기 EPA 논의 이후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간에 한국은 한미FTA, 한EU FTA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았습니다. 일본도 아세안하고 여러 가지 EPA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EPA가 전혀 없었던 시절하고 어느 정도 협상의 경험을 쌓은 시절하고는 여러 가지 아마 입장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간에는 종종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문제입니다. 제가 20대의 오피스 레이디 때부터 논의가 됐으니 4반세기 동안 꾸준히 적자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과제입니다. 이부분을 시발점으로 하면 출구가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서 이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일양국이 성장을 추구해야 된

다. 이웃나라 시장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원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우선순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적자는 일종의 결과입니다. 그걸 숫자로 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신 두 분께 여쭙보겠습니다. 우에노 이사님은 일본기업으로서는 한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매력, 일본입장에서 한국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들리는 얘기가 한국에 주재했던 일본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본 본사한테 아무리 한국이 좋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한국의 저임금 이런 것만 따지고 저임금이라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아 한국을 어필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계시면서 한국의 어떤 스피드감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매력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철 자문역님께서는 한국도 일본에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한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일본인의 발상으로는 이런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시장 자체는 지금 정체국면입니다. 디플레이션 이고 앞날도 밝지 않습니다. 기술력 하나만 보고 한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만한 것인가 그런 자리매김으로 충분한 것인가 충분히 매력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上野 健次(UENO Kenji) 도레이(주) 이  
사국제부문장** : 한국진출의 역사가 상당히 길지만 도레이새한을 설립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 도래의 한국사업 전개가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섬유,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필름부터 시작하였고 여기에 부직포사업도 했고 이것이 성공하면서 IT쪽으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업, 자기기업이란 관계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도레이새한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역시 인재 면에서의 요인이 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매니지먼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높은 능력이 한국진출 성공의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열정이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영자들이 어떤 방침을 세우면 그것을 실천해주는 사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 지금 한국에서 도레이새한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도 저와 입사동기입니다.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망설이거나 여러 가지 한국사정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말은 도레이새한 가서 배우면 반드시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에노 이사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도레이새한의 사장이 본사의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에노 이사님께 여쭙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저희 삼성물산은 일본 니가타에 있는 스테인레스 가공업체인 묘도메탈이란 작은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묘도메탈은 1945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로서 저희가 인수한 배경은 이회사가 스테인레스 가공에 있어서는 상당히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루마니아에 스테인레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그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묘도메탈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서 전세계에 확대시키려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라 아직까지는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습지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습지만 앞으로는 한국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소기업인이 플로어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의 중소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이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다 열거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기업측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줘야 한국기업들도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회사들은 대부분이 직접경영보다는 자본을 투자하여 간접경영을 하는데 실체는 직접경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경영을 할 때 못느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일본시장의 구조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큼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의 욕망을 살려줄 수 있도

록 일본의 제도나 여러 가지 관습 같은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한가지와 관련해서 두 분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일양국에는 별률자문회사가 많이 있고 컨설팅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도 있고 파이낸스 기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철 자문역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장벽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PA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세를 낮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도 포괄적으로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EPA는 관세협상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여러가지를 협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특히 일본의 경우는 어떤 자격증의 공유화라든지 인적이동의 자유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이외에 어떤 분야를 더 추가하면 좋겠는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아젠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 이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산업무역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야끼니쿠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우가 맛있다고 해서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한우를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법에는 검역을 하게 되어 있어 검역을 대기 중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만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중간에서 장사를 하는 상사나 사업자는 어디 가서 항의 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관세장벽은 법에도 없고 어디에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토야마정권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EPA나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을 지키는 것보다는 밥그릇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국에 대해 알기 쉽다고 할까요 일본과 비교를 하면 알기 쉬운 나라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투자환경이라든지 EPA에 답아야 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上野 健次(UENO Kenji) 도레이(주) 이사국제부문장** : 저희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해결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역시 노사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우리일본기업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양측 모두 정부가 하는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이라는 것도 정부차원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를 즉시 공개를 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좌장** : 그럼 패널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으시면 장내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이곳에는 한일 간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대개 한국 분들이 먼저 시작을 해주십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네 분께서 토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하나는 아세안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만 중일, 일중간에서 한중일 3국에서 하는 것이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좀 더 제도적인 수렴을 한다면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중국과 FTA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스테이타스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아직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투자협정개정도 중일간에 해봤습니다만 중국은 내정간섭이다, 남의 사정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감히 중국과 같이 한다는 것에 중국이 과연 따라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경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최강대국인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갔다가 타협적으로 나갔다가 또는 갈등을 겪다가 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이 같이 앉아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치면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는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한국과 중국이,

또는 일본과 중국이 마주 앉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바랍니다만 또 한가지 한일간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화폐문제가 있습니다. 가와이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만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이번 발표에서도 엔화, 원화의 환율 안정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보면 환율의 시소계입에 의해 엔고가 되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고 엔저가 되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왔습시다만,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아시아간의 환율안정화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습시다만, 한일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에게 있어 환율이 안정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었습니까?

**河合 正弘(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 원고가 되고 원저가 되고 다시 원이 조금 회복추세에 있습시다만, 2005년 이후 시작된 원고, 엔저는 아마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시다만, 일본의 금리가 낮아 엔을 원으로 바꿔 한국에서 활용 한다는 그래서 엔저가 되고 원고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먼브러더스 문제가 터지고 그것이 완전히 역전되었습시다만, 2008년에 한국에서 자본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엔에 대해서도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거래가 엔고가 되고 원저가 되는 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일본이 제로금리정책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제로금리와 거의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시다만, 한국과 일본간에는 양국간의 환율을 안정화시키자는 합의는 전혀 없습시다만 이렇게 양국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확대되고 있고 아시아 속에서도 국제시장에서도 경합관계에 있는 양국간에 이렇게 환율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은 역시 문제입니다. 1엔당 1.78원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16원이 되는 등 상당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건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초에 걸쳐서는 양국의 금리가 안정적이고 엔달러의 변동이 상당히 작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이니만큼 사람들은 안심하고 캐리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당국으로는 엔으로 빌려도 원이 떨어지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의 문제이기도 합시다만,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한국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특히 단기적인 자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좀 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해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적극 추진함으로써 출발점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엔이 외부로 나가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당국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양국의 정책당국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좀 더 공조하는데 정책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고 투자자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국이 환기시킨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관세협상도 중요하지만 기업입장에서 보면 환율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제로관세가 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안정되면 도레이와 같이 한국에 진출해있는 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삼성 같은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환율은 변동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는 기계를 들여온다고 할 때는 엔고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현지기업이 어느 정도 장사를 해주느냐가 일본측과는 관계없이 현지기업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산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원저가 유리합니다. 그 회사의 수출경쟁력이란 측면에서는 원저가 유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하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바랍니다만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소화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기업이 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좌장 :** 이수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원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이경태 선생님께도 한국의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분들에 대

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철 삼성물산(주) 자문역 :** 말씀하신대로 기업입장에서 보면 양면의 칼이나 다름없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세가 좋고 수출하는 입장에서 약세가 되면 좋기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엔이 약세기조가 되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엔이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원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엔은 약세가 되고 원은 역으로 강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원은 어차피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엔도 일시적으로는 약세이겠지만 일본의 주변환경이나 경제적으로 봐서 엔도 언젠가는 강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기업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우리 무역협회 회원기업들에게 물어보면 환율은 적정수준에서 안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원화가 달러에 대해 2007년도 말에서 2008년도 초에 거의 9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리먼사태 이후에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21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원저가 유리합니다만, 원저가 지속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안정시켜달라는 바램입니다만, 조금 전가와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이미 외환시장이 100% 개방이 되어 있어 워낙 외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고 또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와이 소장께서 단기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국제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큼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제금융개혁 아젠더 중에 단기투자자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규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G20에서도 긴밀히 공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내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공 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오늘 세미나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셔서 대단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일본의 대한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한국의 대일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양국간의 지역간 회의 등을 개최하면 일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요청받곤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투자를 시야에 놓고 행동에 옮기고 그 형태가 M&A가 될지 일본의 저항감을 배제하고 비즈니스차원에서 대일투자를 한국측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전향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시장과 관련해서 신흥시장에서 앞으로 한국을 보자라는 말이 일본의 매스컴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국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이 중간소득층마저 공략을 하면 한국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경쟁과정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국기업인들이 잘 협력하여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우며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한일관계도 잘 모르는데 동아시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경태 원장님이나 가와이 소장님께서 한일FTA와 관련하여 한일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익의 균형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와이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정권이 출범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일FTA나 EU처럼 더 큰 통합체인지, 아까 치왕마이체제를 이경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화나 다른 분야까지 포함한 그런 경제공동체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FTA를 위한 공동체를 생각하는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것이 우선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는 것이, 예를 들어 한중일+3인지 한중일+6인지 이런 논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또 하나 부과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FTA나 경제통합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어떻게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河合 正弘(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 저는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어드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하토야마정부가 지금부터 동아시아공동체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총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하토야마총리 자신은 통화통합 단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시야를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속의 EU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지휘 하에 아세안+3그룹이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공적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것이 FTA는 물론 투자협정도 있었으며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지만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율의 공조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세안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아세안공동체를 형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물론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투자, 서비스, 자본 서비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시키고 숙련노동자의 이동을 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토야마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EPA, FTA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세안+3인지 아세안+6인지는 하는 것은 본인이 어

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총리 자신은 스피치를 하고 계시는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우회의 바다 아시아에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통해서 나라 간을 연결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해적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관계각국들이 협력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식량의 안전, 인간의 안전보장과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하토야마총리의 생각은 경제적인 것은 당연히 하면서 주변에 인간적인 요소라든지 국가 간을 이어간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아직 논의할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그런 양국이었습니다만,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이해가 많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정말 성미가 급한 한국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정말 성미가 느긋한 일본사람들이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나라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라는 것을 기준으로 절충해 나간다면 타협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 제 1세션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제 1세션 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신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들도 다시 한 번 성대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40부터 한일양국의 단장단분들의 오찬이 3층 사파이어에서, 그리고 단원분들은 3층 크리스탈에서 오찬이 있겠습니다. 또한 13:30부터 개최되는 제 2세션도 여기에서 개최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제 2 세션

테마 : 『今後の環境經營과 그린 비즈니스의展開와 展望』

사회 【古川 洋三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 지금부터 제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 2세션의 사회와 발표를 해주실 강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실 오코노기 마사호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오코노기 교수님은 69년에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75년에는 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 후 연세대학, 하와이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한반도의 정치외교 등의 연구를 하였고 현재는 동대학 법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그간 한일문화교류회의의 일본측 좌장과 현재조선학회 회장,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위원을 겸하고 계시며 한국을 둘러싼 정치·외교 등에 관한 제 1인자로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이어서 양국의 발표자를 시간관계상 직책과 성함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종합연구소의 아다치 에이이치로 창발센터장이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일본자원종합시스템의 이키 오사무 대표이사 사장이십니다. 다음

은 한국측에서 외교통상부 유연철 녹색환경협력관이십니다. 한국전력공사 최태일 스마트그리드 추진실 처장이십니다. 2세션의 발표시간은 1인당 15분이오니 시간엄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1) 좌장 인사

小此木 政夫  
(OKONOGI Masao)  
慶應義塾대학  
법학부 교수



그럼 제가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자 네 분과 사전 협의를 해서 제 1세션도 발표시간을 20분씩 했듯이 제2 세션도 개별설명시간이 필요하므로 발표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측 발표자인 외교통상부 유연철 협력관님이 최근에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청와대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테마인 환경경영과 그린비즈니스에는 문외한입니다. 환경그린이 무엇인지, 그린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사항은 한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자회담을 비롯한 정책이 당분간은 봉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아직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입니다. 그럼 일본측의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종합연구소 아다치 선생님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일본 자원종합시스템의 익키 선생님께서 각론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 (2) 일본측 발표

### 『向後の環境經營과 그린 비즈니스의 展開・展望』

足達 英一郎

(ADACHI Eiichiro)

(주)일본종합연구소  
센터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일본종합연구소의  
아다치라고 합니다. 오늘 한일·일한경제인  
회의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  
다. 제가 속해있는 일본종합연구소는 미  
쓰이 스미토모 파인애플그룹의 연구기관  
입니다. 1989년에 지금 싱크탱크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21년이 지났습니  
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니다. 한국과는 국민은행하고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정  
보 교환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경련에  
서 5년 전에 초청을 해주셔서 환경보고서  
를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보고서가  
많은 기업으로부터 발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소개해 드렸고 한국기업 여러분들  
도 매우 훌륭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된 교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에 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자신 평소 어떤 일  
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금융그룹의 연구소라고 말씀드렸는데 SRI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투자  
라는 금융활동(행동)이 있습니다. 환경문  
제 방안에 앞선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  
신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에코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9년에 일본에서

네 번째로 에코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러한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는 어느 기업  
이 이러한 환경문제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진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는 스태프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  
스트들이 따로 필요했었습니다만, 저희  
들이 이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700개  
사가 넘는 기업이 환경보고서라든지 CSR  
리포트라든지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답  
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수  
집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  
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분석해  
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평소의 업  
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영에 대  
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  
다만 그 일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  
경경영이란 테마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기업이 보다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강조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약간 다  
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이  
란 것은 기업이 정의를 느끼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토라는 저명한 경영  
학자가 계십니다. 이 포토박사는 한마디  
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가 필요  
하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긴장  
하는 한반도 얘기가 있었었습니다만, 국제  
적인 테러가 도처에서 빈발하게 되면 건  
전한 기업경영, 기업활동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신  
형 인플루엔자 소동이 있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경제가 공장가  
동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

습니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 봤을 때 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관점에서 건전한 사회라는 전망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2007년에 IPPC라는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생각하는 정부간 패널이 제출한 리포트 속에 과거 30년에 걸친 인위적인 온난화가 지구규모로 수많은 물리·생물시스템 속에서 관측된 변화에 식별 가능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난화이고 인위적인 활동의 원인이 있다 라는 원인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것 자체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재료를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은 기색이 보이게 되므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저는 인류의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온난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건전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이라는 것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남쪽지역인 큐슈에서는 1등급의 쌀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홋카이도나 중전의 한랭지에서는 나무를 갹아먹는 흰개미 같은 벌레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년 후에 지구환경이 급변한다면 건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금에는 환경경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경영이란 사회활동의 환경 임팩트를 감안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키려는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라는 것은 여러 요인으로 결정이 됩

니다. 신제품, 개발력, 재무체질에 막강한 힘, 이와 같은 기업가치를 규정하는 요인 속에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환경문제에 배려를 하고 있는지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자주 받습니다만 저는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게 되면 기업의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폐기물 처리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최종 처분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처분시키는 비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또는 4배나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폐기물을 줄이면 기업의 코스트가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사례가 전력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기절약입니다만, 작은 전력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코스트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케팅으로서의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나 하는 이미지, 정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보다 평가를 하자 기업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환경에 배려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은 옛날만큼 다이내믹하지 않고들 말합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성실한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30년 후 40년 후 어른이 되면 훗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환경문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환경에 긍정적인 친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서 보람이라든지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자기가 스스로 뜻을 찾겠다 라는 그런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기업의 경쟁력은 그러한 우수하고 문제의식이 높은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혁신입니다. 도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1972년에 프리우스를 출시했을 때 도요타에서는 도요타 에코 프로젝트라는 전사적인 환경배려운동을 했었습니다. 자동차는 지구환경의 적이 될지 모르겠다 라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전사적인 환경문제로 배려를 하였습니다. 환경 불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리라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하면서 프리우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프리우스 한 대가 출시되면 수십만엔의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양산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혼다의 인사이트에 앞서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환경배려라는 마인드가 사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엄격해지기는 하되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과제가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노베이션의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관건은 환경문제에 민감한 기업이나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일로 생각하는 기업이면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라는 식으로 경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전략으

로서의 환경배려입니다. 대개 투자자가 어떤 관점에서 기업의 주식을 가질 것인지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 기업의 온난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원칙이라는 것을 UN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이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계십니다만, 세계투자자,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지구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서 투자처를 선택해주시시오 라는 식으로 지금 UN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도 그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응하는 세계 기관투자자가 2006년부터 5년 사이에 30배나 늘었습니다. 추가대책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인데, 그 큰 요소의 하나로 기업의 환경배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가 기업가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서히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가 기업 가치에 하나의 형성요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 물의 정화, 하이브리드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 이런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 수요가 나올 것인지 저는 4개의 패턴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저층의 코스트를 줄이는, 에너지절약, 전력삭감, 폐기물 축소 같은 유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요입니다. 아! 이쪽이 싸구나 하는 식으로 저절로 수요가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린비즈니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 의해 직접 창출되는 수요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불안 속에서 뉴딜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환경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많은 이니셔티브를 가장 빨리 발취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규제강화를 통해 경제활동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면했던 코스트가 강제적으로 내부화되어서 창출되는 수요입니다. 찬반 양론이 있지만, 배출량거래제도가 지금 논의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등장하면서 기업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내는 것을 무료로 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유료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하자 라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즈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수요입니다. 이것은 그린컨슈머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린비즈니스는 출발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의 수요의 창출을 어떻게 잘 조합시켜 나갈 지가 그린비즈니스 창출의 키가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신성장전략이라는 것이 정부안에서 구상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요소를 잘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린비즈니스의 요소는 7가지 정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집약도를 줄인다는지, 그러니까 적은 재료를 쓰고 에너지도 적은 것으로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의 재활용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서 니즈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차체는 작고 가볍게, 연비는 아주 좋게, 유해물질은 사용 안하고, 폐차

는 모두 리사이클이 가능케 하고 사회도 재생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제조를 하고 고장 없이 오래가는 내구성이 있고, 구매하지 않아도 빌려주는 세계를 한편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와 판매를 한다면 친환경형그린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요소기술은 일본이 뛰어납니다. LED, 하이브리드엔진, 태양광발전 등이 있는데,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력공사 관계자가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스마트그리드라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힘, 그것이 여러 요소기술을 조합시키는 힘입니다. 물 공급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트, 어떻게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냐 까지의 디자인을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본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에코비즈니스의 무대는 시스템에서 에코시티라는 도시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의 천진시에서 35만명의 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환경시스템으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원자바오 총리가 있는 천진에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세계도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코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과제입니다. 그럴 때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환경세라는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출량거래도 있습니다. 파크 앤드 라이드, 즉 어느 곳까지는 차로 가고 이후부터는 공공대중수단을 쓴다든지, 이 같은 사회제도를 만드는데 일본은 취약합니다. 과거제도를 답습하고 기득권에 많이 구애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본기업의 환경

배려경영, 그린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큰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본경제신문으로부터 환경경영입문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 회의에 서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측의 각론부분으로서 일본자원종합시스템의 익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 (3) 일본측 발표

#### 『太陽光發電비즈니스의 現状과 展望』

一木 修  
(IKKI Osamu)  
(주)자원종합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종합시스템의 익키라고 합니다. 오늘 태양광발전비즈니스의 현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태양광발전 전문의 싱크탱크입니다. 국내싱크탱크라든지 국내외 태양광발전업체들과 컨설팅 등을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1980년부터 달려 온 태양광발전 컨설턴트로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태양광발전의 진전을 꿈이라는 베이스로 해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야말로 꿈을 꾸던 시대였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우리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그 꿈을 논한 10년이었고, 90년대는 그 꿈을 좇았던 시기였고 2000년대 들어서에는 그 꿈의 실현을 향해 성큼한 발짝 다가섰던 시대였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2010년 이후는 꿈을 이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의 2020년까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각국 정부의 대처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하려는 나라는 2000년에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일본, 미국, 유럽, 일부 개도국에서 시작이 됐고 정책으로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잉여전력구입, 지금은 feed-in

tariff라든지 보조금, net metering 등 다양한 시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연간도입량도 2000년 당시에는 20만킬로와트로 전세계정도의 규모였는데 10년 동안 30배로 늘어서 6기가와트가 되었습니다. 2008년을 베이스로 하면 스페인, 독일, 이태리,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누적도입량 약 2,000만킬로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태양광발전시장을 보겠습니다. 생산량을 베이스로 보면 2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의 확대가 얼마나 빨랐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태양광발전의 생산이 1등이었는데 최근에는 대만, 유럽 등이 나와 지금은 일본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태양전지의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중심시장도 일본에서 유럽으로 바뀌었고 주택용에서 공공시설, 산업시설, 발전소까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전지의 재료입니다. 실리콘베이스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재료가 태양전지용으로 시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전지의 광을 전기로 바꾸는 변환효율이 10년 동안 크게 진보되었습니다. 다음 태양전지의 제조입니다. 2000년에는 30개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개사가 넘습니다. 이것은 2000년 당시의 톱10의 시장점유율인데, 노란색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태양전지로부터 지금은 전세계의 태양전지로, 독과점상태였던 것이 신흥기업들도 많이 활약해 분산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미국, 유럽기업 여기에 중국, 대만, 한국(현대, 삼성, LG)의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생산능력도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생산에 있어 1기가, 전력

식으로 표기하면 100만킬로와트이지요. 이것을 생산하는 미국의 First Solar와 같은 기업도 탄생되고 있고, 여러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회사가 1기가의 시대를 맞이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진입, 거점확대와 같은 아주 경쟁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전지와 관련된 큰 산업구조의 변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최종유저까지 가지고 가는, 예를 들면 배선, 설치공사, 시공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연관산업으로서 비철금속, 화학, 유리, 요업, 철강 등이 있습니다. 즉 태양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구조를 저는 미니자동차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과 기업이 관계를 맺게 되고 정말 폭넓은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의 현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먼저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은 일조량의 영향이 있습니다. 밤에는 발전이 안되고 값은 비싸다 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떨어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로서의 평가는 선진국, 개도국 상관없이, 공장지붕에 올려놓는 1,000킬로와트까지 커버하는 이른바 건물형 분산형 전원으로 바뀌고 있고 1,000킬로에서 10만킬로까지 커버하는 전기사업용 전원이라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개도국은 촌락전화의 기본이며 전력업계에 있어서 발전수단으로서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에너지시스템의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현재 6기가인데 앞으로 10기가시대가 될 것이고 20기가, 50기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확대, 그러니까 1년 동안

에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미국, 이태리, 프랑스 등입니다. 그리고 100만킬로와트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규모로서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중국, 인도도 태양광발전을 국가전략으로서 도입을 한다면 이런 나라도 기가와트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 태양광발전소라는 것이 커다란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산업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신흥국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발전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수, 합병, 합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전지회사의 군웅할거 시대로부터 실력 있는 PV기업군이 탄생하고 태양광발전산업이 세계경제 자체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태양광발전의 도입인데, 각국의 에너지전략 혹은 경제성장 혹은 환경대응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태양광발전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인도가 생산과 수출도 하고 국내도입확대까지 시도하고 있다. 다음 태양광발전의 연간 도입량의 향후 전망입니다. 2008년을 베이스로 2012년까지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전망치를 표로 만들었는데, 연간 3,000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발전이 독일과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본도 100만킬로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의 전망입니다. 태양광발

전시스템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그 다음 세계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다음 태양광발전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초기보급으로부터 본격적인 보급으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장 면에서는 주택, 공공시설, 산업시설, 상용건축물, 발전소 등등 마켓이 다양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생산과 관련해서는 제조거점이 전세계로 확대될 것이고 생산량은 연간 500기가와트, 즉 5,00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인데, 1와트당 300엔 이하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산업은 관련산업을 포함해 20조엔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는 실리콘, 원료, 원자재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까지 대단히 저변이 넓은 벨류체인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기술은 가일층의 코스트삭감을 위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이고 대폭적인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인식이 확대될 것이고 또 인식은 매년 고양될 것입니다. 다음 전세계에 대한 공헌이라는 면에서 보면, 에너지안보, 지구환경, 경제성장의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이 크게 대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이 전세계로부터 부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전의 일입니다. 태양광발전이 미래의 에너지로서 활약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경쟁과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공조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태양광발전보급을 위한 노력을 함께 연대하면서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장기신뢰성, 인증, 표준, 신규시장 개척, 혹은 통계, 정비 등등에 있어 공통된 기반정비라는 면에서 연계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간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기관인 파리에 사무실이 있는 이 기관에 태양광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각국의 정보공유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멤버입니다. 저는 일본대표를 맡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연구소 분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보급과 관련된 정보공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부분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술개발과 코스트 다운하는 것인데, 그 경쟁이 마치 피겨스케이팅처럼 일본과 한국이 서로 라이벌관계를 가지면서 수준 높은 곳까지 달성할 정도로 기술개발과 코스트 다운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신뢰받는 에너지원이 되고 기간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한국과 일본이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력사, 발전사로부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전력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 녹색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을 주축으로 한 산업구조 또는 세계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에 한국과 일본이 공조할 수 있다면 태양광발전의 미래라는 면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태양광발전비즈니스라고 하는, 대경쟁시대를 극복하라는 저의 저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제 1세션하고 어떻게 연계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연계가 되었던 같습니다. 제 1세션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연대와 한일협력이라는 테마였는데,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논의했습니다만, 제 2세션에서는 보다 첨단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이 향후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가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익키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1세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차원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어떤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측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을 맡고 계신 유연철 국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 (4) 한국측 발표

『코펜하겐 氣候變化總會의 示唆點 : 綠色 成長』

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  
협력관



방금 소개받은 유연철입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공해물질로 대기위험에 직면하자 환경문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되었고, 또한 이런 환경문제가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나 경제, 정치적인 문제로도 확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변화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은 1972년 유엔의 민간환경회의, 82년 세계자연보호헌장 채택,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10년마다 큰 회의가 있는데 2012년이 또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기후변화가 종합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이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을 에너지문제로 보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용한 에너지는 나무와 석탄과 석유였습니다. 이것의 사회는 한 마디로 탄소사회였습니다. 기금까지 인류의 삶의 방식은 탄소사회에서 살아 왔습니다. 지금 저탄소사회의 전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

는데, 이것이 수소사회로 갈 것인지 어떤지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탄소사회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문제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문제인데 이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온실가스로 화석연료 즉 석탄과 석유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한 마디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원의 변화를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저탄소사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녹색성장의 정책은 이번 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에너지원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한 여러 그래프중 이 그래프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나무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할 때 무엇이 발생하였나 하면 산업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탄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석유사용량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오일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 선진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량사용하면서 온실가스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970년 이후부터 신흥공업국가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온실가스배출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발전을 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배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후변화협약사항에 부속서

1국가가 있습니다. 아넥스 1국가라 하는데, 이 국가라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온실가스배출을 상당히 많이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부터가 아니라 오일쇼크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 사항에 부속서 1국가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문제에 있어서 최근세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한국이나 여러 신흥개도국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발생한 국가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형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식을 통해서라도 지구적인 문제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녹색성장분야가 미래협력관계의 중요분야가 되고 여기에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산업혁명의 19세기에는 영국이 석탄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석유를 중심으로 세계를 주도했는데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분야에 누가 주도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색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함께 녹색성장분야에 있어서 미래지향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아시아와 세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상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제공국은 선진국인데 피해국이 개도국이라는 점입니다. 원인제공국과 피해국이 다르다는 면에서 협상이 더딘 것이고, 또 기후변화의 대안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국가의 저항 등 여러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갭도 있어 협상진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오존층보호와 관련해서 커다란 지구환경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문제의 협상은 4년 만에 채택이 되고 발효까지 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제공국과 피해국이 선진국이라는 것과 오존층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의 대체제가 듀폰사에 의해 발견되어 이 대체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차원과 더불어 각국의 규제도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하는 규제가 있는데, 1km 주행시 130그램 이하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고 초과시 1그램당 20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2000cc 디젤자동차로 유럽에 수출하는 것이 1km 주행시 191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61그램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각국의 저탄소제품구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상품을 수출하는 시대에서 이산화탄소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상품화되는 국제적인 외부환경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린레이스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성장이 100미터 달리기를 뛰었다면 앞으로의 레이스는 110미터 허들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애가 있고 길어도 길어진 허들경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의 규칙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경기의 종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

미국으로 97%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급증하는 에너지의 수입금액, 2005년에 588억 불인데 2008년에는 1236억불입니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여러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선박을 전체 다 수출한 총액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원유를 9억톤 수입하는데 원유가 10불만 증가해도 90억불이 추가됩니다. 이 점에서 에너지사용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안했는데, 한국의 경우 적극 추진하는 필요성이 무엇이나 하면,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해외의존도가 높는데 자생력강화의 호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대화해 있어서 한국은 지각생이지만 앞으로는 지각생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즉 얼리무버가 되자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장의 선점효과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92년에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구속력 있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개도국의 경우도 이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선진국, 개도국 모두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2009년까지 2012년 이후의 포스트2012체제의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작년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한 결과 부분적인 합의가 도출되었고 절반의 성공과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상의 쟁점과 타결이 왜 안되는지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선진국은 액션 포 액션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액션이 있어야 선진국도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개도국은 액션 포 머니를 주장합니다. 즉 개도

국의 온실가스 감축 액션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의 액션도 포함하는 법적인 제도를 채택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교토의정서를 폐기한다는 의미이고 개도국의 경우는 지금 교토의정서의 1차공약기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폐기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 협상의 타결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반면, 실질적인 내용인 포스트2012체제의 구축은 실패했다고 하여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총회의 주요 의의는 글로벌 이슈로서의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최대로 부각되었고, 각국의 폴리틱얼 아젠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그린 그로스의 개념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을 하면 반드시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된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함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종래의 개념이었다면, 코펜하겐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성장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 총회의 시사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협상타결에 관계없이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방정부도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 협상에 대한 입장은 단호한 반면, 주정부는 대응이 아주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향후 논의의 초점이 지금까지는 각 국가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가 협상의 초점이었는데 목표치를 설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멕시코에서, 내년에 남아공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린그로스를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가는 각 국가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녹색성장의 전략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코펜하겐총회의 아주 중요한 결과는 이 녹색성장의 추진필요성이 인식되고 전세계 국가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작년도에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설정과정과 더불어 작년에 이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금년 상반기 중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자발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그 갭을 메꾸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간에 협력구조의 정착과 비전의 공유가 전제됩니다. 또한 녹색기업가 정신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산과 한일간의 그린 파트너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3월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

니다. 아시아예선전에서 일본이 한국을 14:2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때의 하라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만,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한국과 여러 번 대결할 것 같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겸손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한국이 이겼는데 저는 하라 감독이 다음 경기는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인터뷰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아시아의 야구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팀으로 끝까지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도 마찬가지로 또한 6월의 남아공 월드컵도 있는데 서로 응원하고 양국이 겸허한 자세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양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해 협력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라 감독이 아주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납득이 갔습니다. 경쟁과 협력을 겸허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피겨스케이팅, WBC에 대해서도 한일관계가 상당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제 1세션하고는 달리 이 세션에서는 각종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슴치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측의 최태일 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5) 한국측 발표

### 『綠色成長을 위한 Smart Grid』

최태일

한국전력공사 스마트  
그리드추진실 차장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기위해 저희 한전에서 새롭게 발족한 스마트그리드 조직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어제 안 사실입니다만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특히 녹색포도라는 그린 그레이프가 유명한 이곳 오카야마에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이고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발표를 들으시는 것을 보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세계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스마트그리드를 설명 드리고 녹색성장과의 연계관계,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증단지를 소개하고 한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을 실어 나르는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 그리드를 스마트하게 한다, 즉 똑똑하고 영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마트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전력망에 전력기술을 접속해서 전력회사 즉 전력공급자나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를 쾌적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기업들은 녹색성

장시대의 새로운 성장능력을 창출하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다가 올 저탄소녹색생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에서 앞으로는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연결되고, 지금까지 사용되던 화석연료를 신재생 무공해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며 전력과 정보가 앞으로는 쌍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존의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가 참여하는 설비운영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그리드의 구축이 전력산업은 물론이고 중전기, 가전, 자동차, 에너지 등등 산업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IT와 중전기가 결합하는 상품이 나타나게 되고 가전산업 쪽에서는 전력상황에 반응하는 스마트가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효율적 전력이용이 가능한 스마트빌딩이 나타나고 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 전기전용 일렉트릭비클 같은 전기자동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너지부분에서는 전기충전소와 같은 새로운 전력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보겠습니다. 70년대를 고속도로로 대변되는 산업화, 즉 건물과 사회간접 자본시대로 보고, 90년대를 인터넷이 나타난 정보화시대로 보면, 2000년대는 스마트그리드로 대변되는 녹색성장 즉 전력과 에너지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 100년 만에 찾아온 패러다임의 변화로 OECD국가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세계 전력산업 신규투자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도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전력망과 연계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원전과 스마트그리드를 차세대의 강력

한 성장동력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별 스마트그리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마이크로그리드에 초점을 두고 최근에는 뉴멕시코와 그린그리드이니어시티브에 참여하는 등 해외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안보를 위주로 노후된 전력망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회원국간의 전력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선제적으로 전력IT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에 세계최대규모의 실증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G8확대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스마트그리드분야의 선도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또한 에너지효율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운영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기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약 3분의 1수준이며 호당정전시간을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서 16분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일부 주와 비교하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배전손실분야는 4%로서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부하율도 76%로 세계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마트그리드 추진단계에 대한 자료인데, 맨 밑에 스마트그리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IT인프라와 통신 인프라를 기본으로 제일 먼저 추진되는 1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미터, 배전자동화 그리고 변전소자동화와 같은 전력계통의 자금기술이 해당되고 이를 토대로 커스토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응용분야로서 포미터메이션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유

틸리티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즉 전력회사 응용분야로 수요반응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효율화 등이 마지막단계로서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소 다른 의견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이 전체를 스마트그리드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1단계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커스토머 사이드 응용분야에 주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아시아제국들은 아직 1단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차세대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저탄소생활을 위해서 2030년 세계최초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키 위해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인함으로써 발전설비, 신규투자절감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저장장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실증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실증단지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작년도에 착수해 201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스마트파워그리드, 스마트운송, 스마트일렉트릭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약 160여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정부에서 출연한 670억원과 민간인이 참여해 출연한 1,600억원의 투자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실증단지의 지형도를 실제로 보여 드린 자료입니다. 2개의 빨간색으로 된 변전소에서 지능형 발전장치, 그리고 변전소자동화 설비가 구축되며 4개의 배전선로에 배전자동차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PLC 즉

전력소를 위한 통신설비가 구축이 되고, 스마트일렉트릭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계량기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설치되고 또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연결해서 종합적인 실증단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2012년까지 실증과 테스트를 거치고 2013년에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파워그리드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기술 실증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그리고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송전망분야에서는 센서를 이용한 전력설비의 원격감시 그리고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전선로분야는 배전설비의 고장에 즉시 대응을 구축하는 등 배전계통운동을 지능화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컨슈머부분은 최적의 스마트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스마트미터를 설치해서 양방향전력거래를 도모하고 수요반응을 조절하는 등 전력설비효율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운송수단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현재 충전스탠드와 계량개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동차가 약 6~8시간 정도 소요되는 완속충전장치 그리고 현재 20분정도 소요되는 급속충전장치로 충전이 되는 그림입니다. 작년 12월에 개발되었습니다. 신재생분야는 분산형전원이 계통연계되고 에너지저장장치가 문제없이 이 계통에서 운영되도록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일렉트릭서비스분야는 실증단지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파워그리드실증연계시스템, 그리고 컨소시엄간에 실증을 상호연계 체크하고 실시간 요금 제공되며 에너지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간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본은 태양광발전을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산화탄소 감축 그리고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로드맵이 확정 발표되었고 일본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일본이 7개 분야에서 26개 주요항목에 대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및 위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국에서도 5개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 가이드를 마련하고 민간주도의 표준화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책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원가기준요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협력 사례로서 일본과 미국이 그린에너지협력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APEC정상회담시 이를 활용할 계획인 반면, 한국은 스마트그리드협회가 세계적인 미국의 그리드와이즈얼라이언스와 협력하고 MEF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통해서 협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G20 정상회담시 이를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각 전력회사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은 KEPCO를 중심으로 실증단지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인터넷상으로 알아낸 것입니다만, 일본이 며칠 전에 4개 거점도시에 약 1,000억엔의 돈을 투입해 실증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 한국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는 지경부장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일간 국제협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은 양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전력저장분야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이에 반해 한국은 요금제도, 전력거래 등 정책분야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관계 스마트그리드의 표준화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한전과 동경전력이 스마트그리드표준화를 위해서 양사의 CEO간의 회담을 통해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세계 스마트그리드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6) 자유 토론

**좌장 :**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약 30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적극적인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리드체제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기업과 정치의 관계가 걱정되는데 아다치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국이라는 섹터, 그리고 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여러 측면이 있을텐데 이 점에 대해 아다치 선생과 유협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足達 英一郎(ADACHI Eiichiro) (주)일본종합연구소 센터장 :** 일본의 현황, 한국의 리더십과 비교해 어떻게 하는 것인데, 저도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속상한데요. 일본은 하토야마정부가 1990년대비 2012년에 -25%의 이산화탄소를 삭감하겠다는 국제적인 공약을 작년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안된 것은 민주당의 공약에도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하고의 의견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발단이 되어 어떤 국민적인 합의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최종결정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대신 시한이라는 것이 퍼블릭 코멘트를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주도하는 힘 정치리더십은 필요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면밀한 준비 후에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



본의 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입니다. 하 시모토 행정개혁시 경제산업성 안에 있는 환경부서하고 환경성 안에 있는 그런 스텝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즉 일본의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성 쪽과 경산성 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실가스문제를 말씀드리면, 바이오전력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성,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성,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각기 제멋대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여 나갈지 이정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전략실이라는 것이 발족되었는데, 이 국가전략실 담당관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지만 그야말로 조율기능을 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환경선진국입니다. 요소기술부문은 일본이 당당하게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힘이 부족하고 이것이 일본의 심각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키노기 교수님으로부터 차이나팩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전 제 1세션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한중일 3개국이 무엇인가를 함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환경에너지 분야 혹은 기후변화대책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온난화 환경문제를 방치하면 한국도 일본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한일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일치됩니다. 반면에 중국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난 번 코펜하겐회의에서 중국은 일종의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 속도보다는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지금은 에너지원 단위라고 하는 발상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역시 일본과 한국같이 환경기술을 가진 나라들이나 혹은 환경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나라들에 중국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사회과학원 분들과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웰컴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의 공조와 연대, 이런 부분을 너무 거창하게 보지말고 환경에너지 분야에 집중 특화시켜서 논의를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협력관님, 중국의 팩터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근대화의 지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 올 미래세계에 대해서는 지각생이 안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녹색성장을 추진해 나가자는 리더십의 여러 가지 정책구상이 확고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통령께서 2008년 8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OECD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2009년 6월입니다. 보통 OECD라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전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기구인지라 항상 선두적인 기구인데,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발표한 것보다 1년 뒤에 채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아다치 선생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녹색성장에 있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선도적인 국가로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 팩터는 한중일 세 나라의 구성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에 있어서는 문제와 해결점, 추진력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한중일에 있습니다. 환경문제, 녹색성장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력을 해서 모델을 만든다면, 그 자체는 한중일 협력모델이 아니라 세계의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분야에 있어서의 한중일 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각 국가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시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녹색성장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는 중국이 코펜하겐회의에서 온실가스 목표치설정을 하는 데 있어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중국의 국내적인 정책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저유가정책 때문에 이루어졌다. 80년대부터 10년 동안 저유가정책으로 석유값이 아주 낮았다. 소련의 주된 재정수입이 석유수출이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어 재정악화 궁극적으로는 해체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유가는 고유가정책이 지속될 것입니다. 왜

냐하면 중국의 석유수요가 급증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고유가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설인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중국은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을 적극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녹색성장의 추진은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여기에 한중일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문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황사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문제국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피해 국가인데, 보통 환경문제는 오염원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한중일의 구도를 보면, 피해자가 돈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다 많은 정책과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한중일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좌장 :**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一木 修(IKKI Osamu) (주)자원종합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 태양광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여러분의 신변에서 에너지로서 토의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2, 3년 사이입니다. 독일이 먼저 보급 확대에 매진하였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태양광발전의 전기는 전력과 계통연계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틀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보급 촉진하는데 있어 규격화, 표준화, 성능평가방법, 장기신뢰성 설정방법 등 보급을 위한 공통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 세계와 연동해 공조하면서 협력해 규격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태양전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양광발전소라는 발전소는 땅위에 태양전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지붕 위, 공장 아니면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지붕에다 시공하는, 전기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건축기준법이 관련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공의 형태에 대해 표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전기측면에서나 건축시공측면, 설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것이 앞으로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태일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처장 :** 말씀 드린대로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이 다양화되고 광범위한데, 앞으로 이것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IEC를 비롯한 국제표준화기구의 워킹그룹 같은 곳에서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데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급속과 완속충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의 모양이 틀리면 한국과 일본에서 운전하던 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운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국제표준이 미국이나 유럽 것으로 되면 그 표준에 맞추어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중국이 같이 공조해서 먼저 표준화를 앞서가면 세계표준화를 주도해서 개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경전력과 완속충전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화가 합의되어 세계표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급속충전장

치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아시아국가들이 먼저 기술제휴를 하여 표준화를 주도한다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 저는 금융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23일경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이라는 것이 출시되었습니다. 스미토모신탁은행하고 저희가 일본의 개인투자자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실은 2년 전에 일본의 에코펀드를 한국의 은행의 지원으로 한국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매한 적이 있는데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기업에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 별로 매력이 없는 상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꿈에는 금융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한중일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혹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투자, 융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벤처기업, 한중일의 공동마켓, 상장마켓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금융측면에서도 이 환경분야의 한국과 일본의 공조에 대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長井 正成(NAGAI Masanari) 한국미쓰**

**이물산(주) 사장 :** 방금 네 분의 발표, 그리고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방지의 필요성, 그리고 그린뉴딜정책의 중요성, 나아가서 환경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이 환경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스페셜 메커니즘이 없으면 일반적인 에너지 지원과 비교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수입, 새로운 세금인 환경세도 있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주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최태일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처장 :** 말씀하신대로 아직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고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분산전원이나 스마트그리드기술도 일단 투자가 선행되어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태양광발전단가가 기존의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패리티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전폭 지원해야만 신시장에서 앞서가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국가의 결단이 중요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 한국은 상당부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 저는 태양광발전 30년 보급에 관해 지켜보았습니다. 피딩탈리프가 좋은 건지 보조금이 좋은 것인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딩탈리프는 여러분의 전기요

금에 보급되고 보조금은 여러분의 세금을 통해서 보급됩니다.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는 우리로부터 나가는 자금을 통해서 보급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양광발전의 값을 인하할 것인가? 자립을 시킬 것이냐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바로 최선생이 말씀한 그리드패리티라는, 태양광발전의 코스트가 전력회사가 구입하는 전력과의 코스트와의 비교에 있어서 양을 확대함으로써 코스트다운이 진행되고 기술혁신을 통해 코스트다운이 이루어집니다. 그 양적인 확대는 국가에 의한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고 일본은 반드시 몇 년도까지 이것을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책을 추진한다고 함으로서 산업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역할은, 그 때까지 이 만큼의 양이 보장된다면 이 가격까지 내려가겠다는 코스트다운 노력을 함으로써 보급까지의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주택형태양광발전 시스템은 국산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한국산이 들어와 있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스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의 그리드패리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택의 지붕에 보급되는 시대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평우 (주)세아제강 상담역 :** 저는 한국에서 한자교육총연합회에서 NGO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다 선생이 발표하신 것 가운데, 인재교류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한자기피증이 있어 일본에 적응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스크린을 보니 일본은 전부 한자인데 반해 한국측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경제 5단체장이 7, 8년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자가 기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하 회사들이 입사시험시 반드시 한자시험을 보도록 결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저희 단체가 주도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 생존해 계시는 국무총리가 21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한자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상적으로 노출시켜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여기에 국무총리 20분이 찬성서명을 해서 지금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또 최근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학부모의 87%, 교사들의 75% 그리고 국회의원의 95%가 한자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정말 한국이 한자를 40년 전에 학교에서 폐지해서 전부 문맹인입니다. 일본말과 똑같이 한국의 어운도 70%가 한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라는 한자에 대해 아마도 우리 대학생들 못 읽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엔철 국장이 청와대에 가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에너지절감에 대한 개념이 한국인 전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KTX를 타 보면, 여름에는 너무 춥고 겨울에는 너무 덥습니다. 몇 번 관계기관에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에는 대략 1만대의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빼고 만대의 버스가 평균 10명이하가 타고 거의 공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포프리즘에 편승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공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될 텐데 시민들

이 불편해 할까봐 하는 이런 포프리즘 때문에 과잉난방이나 냉방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앞으로는 파워포인트 만들 때 부분적으로는 한자를 섞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연세대학교에서는 최근에 인터넷캠퍼스를 송도에 만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학생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하는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한국을 연구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1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웁니다. 공통어로서 영어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서로의 나라의 말을 배워가면서 새로운 타입의 교육을, 3국관계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3국관계도 기업관계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학생교육 분야에서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지금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제 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제 2세션 회의의 코디이신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와 발표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20분 동안 커피브레이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4시 정각에 폐회식이 시작되오니 4시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 6. 폐 회 식

### (1) 공동성명 채택

**사회 【古川 洋三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 지금부터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단장** :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2회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일 양 단장단에 의해서 공동성명안을 검토심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안을 얻었사오니 먼저 일본측으로부터는 후루카와 전무이사님께, 그리고 한국측으로부터는 지광훈 전무이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후루카와 전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古川 洋三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그럼 공동성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안』(일본어로 낭독. 이하 생략,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飯島 英胤 단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광훈 전무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광훈  
(사)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안』(한국어로 낭독. 이하 생략,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飯島 英胤 단장** : 감사합니다. 방금 일본어와 한국어로 공동성명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희장님 어떻습니까?

**조석래 단장** :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거나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이견 없으십니까?

**飯島 英胤 단장** : 네. 감사합니다. 만일 의견이 없으시면 큰 박수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받아서 공동성명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의 회의 진행은 사무국에 부탁드립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양국 회장님의 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의 조석래 회장님의 폐회인사가 있겠습니다.



## (2) 단장인사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그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아주 성공리에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대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주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을 위시한 일한경제협회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토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지하고 또 양국 경제협력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거기에 아주 솔직한 직접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모임이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양국이 FTA/EPA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 또 그런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무역역조문제라든지 혹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최해 주신 일본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좋은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측의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일본측 대표단 단장



방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석래 회장님과 협력하면서 성공리에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제인회의에서 다루게 된 테마의 영향이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것을 지원해 나가는 한일경제인회의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의의 내용이 매우 미래지향적이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국이 명예로운 지위를 국제사회 속에서 얻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글로벌한 세계적인 시각에서의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연과의 공생이 경제계에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거기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테마에도 있었듯이 저탄소사회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앞으로의 공동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향하여 경제활동과 여하히 균형을 잡아서 인류평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공헌할 것인지 이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말이 일컬어진 것이 몇 년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현실적인 말로서 다시 소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가 앞으로의 성장센터로서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선진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이 또는 거기에 중국도 포함한 3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협조하면서 앞으로의 아시아의 경제성장센터로서의 리더역을 담당할 것인지, 거기서 EPA/FTA의 애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양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자간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존재의의가 다짐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무역입국입니다. 내수의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출산화,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국가가 성장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내수이상으로 외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외수를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열심히 노력과 경쟁하면서 커다란 기술경쟁력, 개발력을 얻어 가면서, 한편에서는 이번에도 논의가 되었듯이 한나라만으로는 자기완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호의존관계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한국이 협조를 해 나가는 요소가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부터의 협조와 경쟁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느끼면서 이를 동안에 걸쳐서 발표를 해 주신 신산업무역회의 아소 체어맨과 오 체어맨의 발표는, 앞으로의 양국의 열린 투자와 무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조 회장님과 의논하면서 정부건의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권구상과 일본과 한국의 모습, 위상, 그리고 오후에 이루어졌던 환경경영, 그리고 저

탄소사회에 대한 대응, 에너지문제, 이러한 것은 두 분의 사회자의 훌륭한 진행 속에서 합쳐서 여덟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경제인회의에 참석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발표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발표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여러 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EPA/FTA의 중요성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말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EPA/FTA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무역투자, 인적교류 그리고 문화교류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오픈된 형태로 국가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내용을 정부에도 건의를 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 (3) 폐회

**사회** : 마지막으로 이이지마 회장님, 이시이 지사님을 비롯하여 현지 오카야현에 많은 간부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틀 동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시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일간에 걸친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잘 안보입니다만, 이틀 동안 동시통역을 해주셨던 최은주 통역사, 박휘 통역사, 그리고 나가토모 통역사에게 성대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본 회의의 진행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지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에 걸쳐 개최되었던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다시한 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회장님의 공동기자회견이 4시 30부터 45분 동안 3층 사파이어룸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개최 장소는 한국입니다. 그 때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 V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古川 洋三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 그럼 지금부터 40분간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공동성명 내용을 포함해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제신문** : FTA/EPA에 대해서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 1년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일본측 대표단 단장** : FTA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1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제작년부터 과장급의 사전협상이 심의관급으로 격상되었고, 1년에 2번 정도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입구에 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FTA에 대해서 양국 정부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하토야마정권으로 바뀐 후 정부는 FTA의 조기체결에 대해서 아주 의욕적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그것을 명확한 방침으로서 각 장관에게도 지시를 하고 있고, 정치과제로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분명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 14일에 여기 계신 조석래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단장단일행이 정부를 예방했습니다. 그 때 4명의 대신을 만나 뵈었습니다만(한 명은 부대신이었습니다만), 그 때도 분명한 의사를 제시해 주시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하토야마정권에 있어서는 시종 일관입니다. 그래서 경제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여러 과제는 남아 있지만 하루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 지금 이이 지마 회장께서 1년 동안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 부처의 대신들을 뽑고 한일FTA에 대해 얘기된 것은, 특히 양국의 FTA가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데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는 서로 노력해 해소하자는 강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문제, 이것도 큰 과제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점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한일FTA에 대해서는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가 강하고 또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일일보 :**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자주 나왔던 말이 동아시아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있어 한일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국을 어떻게 연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경제인회의의 공식적인 테마로서 중국문제를 다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飯島 英胤 단장 :**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가 앞으로의 세계의 성장센터이고 세계경제에 주는 임팩트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로서도 과거 자민당정권시대로부터 아세안+3 또는 아세안+6라는 형태를 통해서 경제권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확대하고

동아시아권을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경제 분야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 한일의 협력의 틀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논의가 투자협정부터 시작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연구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인회의로서도 어디까지나 한일이 기축이 됩니다만, 여기에 중국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테마로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한일이 갖고 있는 인식을 공통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석래 단장 :** 방금 이이지마 회장께서 정확히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회의에서 재작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침체를 탈피하는데 있어, 앞으로 우리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크게 의존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아시아가 역내교역을 늘림으로서 세계경제성장을 리드해 나간다고 하는 점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시아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함으로써 그러한 성장의 중심역할을 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에 관해서는 개방도라든지 체제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토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혹은 스탠더드화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중국하고도 협력해 나가는

길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양경제일보 :** 이번 회의는 종전회의보다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더라도 고도의 인재교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한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서로가 협력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체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飯島 英胤 단장 :** 고도인재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같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일본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한 학생들 중에 일본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일단 귀국을 한 다음에 다시 구미 쪽으로 유학을 하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일EPA를 체결하는데 있어 그 내용 중의 하나로서 일본의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을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 양측에서 고용과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결시키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 같은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기업 경영자들의 의식을 개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기업들은 말로는 국제화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회사 내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말만 국제화지 진정으로 국제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한국의 우수한 인재, 영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도입하면 일본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규제철폐, 의식개혁을 통해 한국의 하이레벨의 인재를 가능한 한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PR도 많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탄소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제시되었고, 작년에 코펜하겐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의결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이레벨의 목표를 가지고 저탄소사회를 이룩해 나가자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일 모두 일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선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 여러 구체적인 접근과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비즈니스

스분야도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일정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석래 단장** : 역시 소자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을 더 높여야 된다는 면에서는 인적교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인적활용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어제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역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는데 하나의 큰 아이템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촉진을 위해 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가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山陽新聞** : 이번 회의를 오카야마에서 개최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최소감은 어떠한지? 또 하나는 국가적인 경제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어떤 하나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한일간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飯島 英胤 단장** : 일본에서 경제인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능하면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지방에서 개최함으로써 지방과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지역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지방개최가 방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카야마에서 개최하였는데, 자기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면에서도 경제인회의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지사, 시장을 비롯해 오카야마상의 회장도 나오시고 아주 성의 있는 대접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개최할 때는 지방에서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편 등의 문제도 있어 어디에서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기본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오카야마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피가 흐르는 관계를 이 지역 사람하고도 맺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간 교류에 대해서 입니다만, 저희 한일 양협회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교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이나 투자,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류라는 부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큐슈하고 한국사이의 교류, 호쿠리쿠지역과 한국과의 교류, 나아가서 기타큐슈하고 한국 남부지역간 클러스터간 교류라는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한일 모두 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인적인 교류와 문화적인 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간 교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오카야마에서 개최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오카야마하고 한국사이의 지역간 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되

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의 이시이 지사님도 다방면에 걸쳐 교류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회의 개최가 그런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석래 단장** : 이이지마 회장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인회의라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위한 이슈를 다루는 것 외에도 네트워킹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라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을 다니면서 소개하고 알고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동양경제일보** :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G20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요코하마에서는 APEC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없었지만 그 회의의 개최를 위해서 한일이 협조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석래 단장** : G20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역시 세계가 G7 혹은 G8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세계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시아의 경제가 크게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는 G20모임을 금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아시아의 성장발전에 대해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G20회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APEC회의가 요코하마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협력해서 G20회의와 APEC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게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4개 부처의 대신들을 뵈었을 때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G20회의에 있어서는 역시 세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민간 특히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 전날에 경제인들이 모여서 G20에 건의 제안하는 것을 만들어 내기위해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회의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정상회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상들과 같이 모여 세션을 함으로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APEC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모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임에서도 앞으로 AP EC문제에 대해서 경제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 第42回 韓日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10年 6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智 光 薰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821 서울特別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韓日財團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THE 42<sup>nd</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10.4.14~17**  
**OKAYAMA, JAPAN**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4F, 112-1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135-821, Korea

Tel : +82-2-3014-9888 / Fax : +82-2-3014-9899

<http://www.kje.or.kr> E-mail : [kje@kje.or.kr](mailto:kje@kje.or.kr)